

Seoul Children's Playground International Symposium

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



Playful City Seoul,
Shaping the Future of Playground

놀고 싶은 서울, 놀이터의 미래를 말하다

2018.11.09.(FRI) 13:30 ~ 18:00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Playful City Seoul,
Shaping the Future of Playground

놀고 싶은 서울, 놀이터의 미래를 말하다



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Playful City Seoul,
Shaping the Future of Playground

놀고 싶은 서울, 놀이터의 미래를 말하다

행사명 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
Seoul Children's Playground International Symposium

주 제 놀고 싶은 서울, 놀이터의 미래를 말하다
Playful City Seoul, Shaping the Future of Playground

일 시 2018.11.09.(FRI) 13:30~18:00

장 소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주 최 서울특별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시 간	프 로 그 램
12:30~13:30(60')	등록
13:30~13:45(15')	개회식 : 환영사 / 축사
	(Keynote address) 기조 연설
13:45~14:15(30')	놀 권리 - 웨일스의 경험 The Right to Play - Our Journey in Wales 오웬 로이드(영국, 웨일스 보육놀이유아국 장관)
14:15~14:35(20')	서울 창의어린이놀이터 연구: 아동놀이 행동에 대한 긍정적 효과 A Study of Seoul Creative Playgrounds: Positive Effects on Children's Play Behaviors 김명순(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Session 1) 놀고 싶은 도시(A city where children want to play)
14:35~14:50(15')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어린이 친화도시' 실행 계획 : 목표와 실행수단 Action Plan "Child Friendly City" of the City of Wolfsburg : Objectives and Measures 비앙카 리그너(독일, 볼프스부르크 청소년복지국 아동청소년 상임위원)
14:50~15:05(15')	아동친화적 볼프스부르크 커뮤니티에서의 도심 놀이터 계획 Urban Playground Planning in the Child Friendly Community Wolfsburg 앙겔리카 뢰트허(독일, 볼프스부르크 청소년복지국 아동청소년 상임위원)
15:05~15:20(15')	서울 4개 지역에서 나타난 아동놀이패턴 유형 : 어떤 동네환경이 일상 속 놀이를 지원하는가? Child Play Patterns of Four Neighborhoods in Seoul: How Neighborhood Environment Supports Daily Play Activities? 최이명(두리공간연구소 연구실장)
15:20~15:35(15')	지역별 특성에 따른 놀권리 증진 활동 Region-specific Activities to Promote Right to Play 조윤영(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
15:35~15:45(10')	커피 브레이크
	(Session 2) 함께 만드는 놀이터(Playground built together)
15:45~16:10(25')	국가별 맞춤형 놀이터 및 확장성 Customising and Scaling Play Countrywide 마커스 베르만(호주, Playground Ideas 설립자 및 대표이사)
16:10~16:35(25')	함께 만드는 친환경 놀이공간, 21세기 아동을 위한 해결책 Solutions for 21st Century Children in Co-designing (green) Playspace 레넷 코르탈스 알티스(네덜란드, MakeSpace4Play 컨설턴트 및 오피너)
16:35~17:00(25')	아이들이 주인공! 모험 놀이터 40년의 운영 노하우와 지역의 자산 Children is the Lead! Operation Know-how in an Adventure Playground for 40 years and Assets in a Obtained Area 나카니시 가즈미(일본, 세타가야 플레이파크 플레이워커)
17:00~17:15(15')	아동의 목소리에 근거한 어린이공원 개선 경험 Making Playgrounds Based on the Children's Voice 김은정(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Discussion) 종합토론
17:15~18:00(45')	놀이터를 말하다 Let's talk about playground 좌장 : 진승범(이우환경디자인 대표) 패널 : 국내외 발표자 오웬 로이드 외 9명

초대합니다.

서울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자율과 창의, 융합의 미래 세대를 위한 놀이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도시환경에서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놀고 싶은 서울, 어린이 놀이터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서울시는 2015년도 부터 올해까지 100여개의 아동주도적 놀이 중심의 창의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아이 눈높이에 맞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모든 아동들이 차별 없이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놀이에 취약한 지역과 공간을 찾아 아동들과 함께 놀이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영국, 독일, 호주, 네덜란드, 일본 등 국내외의 민관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놀이정책, 놀권리, 놀이연구, 놀이공간, 놀이터디자인 및 놀이터운영 등 놀이터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에서의 어린이 놀이와 놀이터 관련 이슈와 방향에 대해 생생하게 재조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뛰어 놀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놀이터를 만날 수 있는 이번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 11. 9.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이제훈**

(Keynote address) 기조 연설

p.05

오웬 로이드
(Owain LLOYD)



영국, 웨일스 보육놀이유아국 장관

놀 권리 – 웨일스의 경험

The Right to Play – Our Journey in Wales

p.11

김명순
(Myoung Soon KIM)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부속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장

서울 창의어린이놀이터 연구 : 아동놀이 행동에
대한 긍정적 효과

A Study of Seoul Creative Playgrounds :
Positive Effects on Children's Play Behaviors

Session 1 놀고 싶은 도시

p.19

비앙카 리그너
(Bianca LIEGNER)



독일, 볼프스부르크 청소년복지국
아동청소년 상임위원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어린이 친화도시' 실행 계획 :
목표와 실행수단

Action Plan "Child Friendly City" of the City of
Wolfsburg : Objectives and Measures

p.19

앙겔리카 뵘트허
(Angelika BÖTTCHER)



독일, 볼프스부르크 청소년복지국
아동청소년 상임위원

아동친화적 볼프스부르크 커뮤니티에서의 도심
놀이터 계획

Urban Playground Planning in the Child Friendly
Community Wolfsburg

p.25

최이명
(Yeemyung CHOI)



두리공간연구소 연구실장

서울 4개 지역에서 나타난 아동놀이패턴 유형 :
어떤 동네환경이 일상 속 놀이를 지원하는가?

Child Play Patterns of Four Neighborhoods
in Seoul : How Neighborhood Environment
Supports Daily Play Activities?

p.33

조윤영
(Yun Young CHO)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

지역별 특성에 따른 놀권리 증진 활동

Region-specific Activities to Promote Right
to Play

Session 2 함께 만드는 놀이터

p.41

마커스 베르만
(Marcus VEERMAN)



호주, Playground Ideas 설립자 및 대표이사

국가별 맞춤형 놀이터 및 확장성
Customising and Scaling Play Countrywide

p.49

레넷 코르탈스 알터스
(Renet KORTHALS ALTES)



네덜란드, MakeSpace4Play 컨설턴트 및 오퍼

함께 만드는 친환경 놀이공간, 21세기 아동을 위한
해결책

Solutions for 21st Century Children in Co-
designing (green) Playspace

p.57

나카니시 가즈미
(Kazumi NAKANISHI, 中西和美)



일본, 세타가야 플레이파크 플레이워커

아이들이 주인이다! 모험 놀이터 40년의 운영
노하우와 지역의 자산
Children is the Lead! Operation Know-how in an
Adventure Playground for 40 years and Assets
in a Obtained Area

p.69

김은정
(Eunjoeng KIM)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아동의 목소리에 근거한 어린이공원 개선 경험
Making Playgrounds Based on the Children's
Voice

놀 권리 - 웨일스의 경험

The Right to Play - Our Journey in Wales



오웬 로이드

영국 (United Kingdom)

웨일스 보육놀이유아국 정책관

Deputy Director of Childcare,
Play and Early Years at the Welsh Government

Owain LLOYD

놀 권리 - 웨일스의 경험

1925년 유일한 웨일스 출신 영국 수상이자 영어가 외국어였던 데이빗 로이드 조지(David Lloyd Georg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놀 권리는 어린이가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놀이는 자연에서 삶을 배우는 방법이며, 어떤 공동체도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이 권리를 침해하면 시민의 몸과 마음에 치유할 수 없는 해를 가하게 된다.’

이후 10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웨일스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을 법으로 도입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웨일스 정부는 모든 활동에 있어 UNCRC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UNCRC 제31조인 놀고 쉴 권리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웨일스가 놀이 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음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웨일스는 제31조에 의한 어린이의 권리를 존중할 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놀이를 명문화했습니다. 지방 당국들은 관할지역의 가족들의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놀이 기회가 충분한지 평가하고 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웨일스 정부는 놀이에 큰 가치를 두며, 우리 사회의 어린이의 삶에서 놀이가 갖는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웨일스는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믿으며, 놀이가 어린이가 삶을 즐기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며 어린이의 복지에 기여한다고 믿습니다. 웨일스는 또한 놀이가 어린이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감정적 발달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신념을 뒷받침할 증거가 다수 있으며, 놀이가 어린이의 삶뿐 아니라 어린이의 가족, 나아가 사회 공동체의 복지에도 기여한다는 이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놀 권리는 UNCRC 제31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웨일스 정부는 2004년 UNCRC를 정식으로 채택했으며, UNCRC의 원칙을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와 특별히 관계가 있는 3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제31조(여가, 놀이, 문화):** 어린이는 쉬고 놀 권리를 가지며,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 기타 여가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휴식, 여가, 놀이, 레크리에이션, 문화생활, 예술에 대한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일반규정 제17조(General Comment No17)와 함께 적용해야 한다.(제31조): “일반규정은 어린이의 복지와 발달과 관련한 제31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제31조에 의한 권리의 존중, 이의 적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15조(결사와 집회의 자유):** 모든 아동은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 **제12조(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 성인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한 의견을 말할 권리를 가지며, 아동의 의견은 정당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웨일스에서 놀이는 웨일스 정부의 어린이를 위한 7대 핵심 목표 중 핵심 목표 4(놀이, 스포츠, 여가, 문화)에 의한 어린이의 권리 중 하나로 인정받습니다. 이는 ‘2004년 제정 아동과 청소년 권리(Children & Young People: Rights to Action, 200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웨일스 정부는 또한 모든 어린이를 위한 양질의 놀이 기회가 빈곤이 어린이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이들의 회복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놀이는 또한 고비용의 여가를 제공할 수 있는 가정과 그러지 못하는 가정의 어린이들 간 불평등을 줄이는 수단이 되어 모든 어린이의 빈곤 경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웨일스 정부는 어린이가 훌륭한 놀이 기회를 갖고 자신의 여가 시간을 즐기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웨일스의 놀이 정책에는 다음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놀이는 모든 어린이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감정적, 창의적 역량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사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육성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내리는 결정은 그 결정이 어린이의 놀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내려져야 한다.”

웨일스는 이를 법으로 제정해 모든 어린이가 흥미롭고 도전적인 다양한 놀 기회를 갖고, 여가시간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웨일스: 놀이 친화적 국가’는 지방 당국들이 관할지역 내 어린이의 충분한 놀 기회를 평가하고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명문화된 지침입니다. 웨일스는 2012년 11월 모든 지방 당국이 관할지역 내 어린이의 놀 기회가 충분한지 평가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2014년에 웨일스는 지방 당국들이 평가 결과를 고려해 충분한 놀이 기회를 확보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웨일스는 이와 같은 의무를 법적 체계에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므로, 이와 같은 노력에는 선례가 없습니다. 다양한 놀이와 여가 기회를 제공하는 놀이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 모든 파트너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웨일스 정부는 지방 당국들에게 어린이의 삶에 있어 놀이가 갖는 중요성을 인정할 것을 장려하며, 각 지방의 구조 내에서 협력기관, 어린이, 어린이의 가족, 공동체와 협력해 어린이가 원하는 놀이 기회에 접근하고 기대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장려합니다.

The Right to Play - Our Journey in Wales

In 1925, David Lloyd George who is the only British Prime Minister to have been Welsh and to have spoke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said:

'The right to play is the child's first claim on the community. Play is nature's training for life. No community can infringe that right without doing enduring harm to the minds and bodies of its citizens.'

Less than 100 years later, Wales became the first nation in the world to enshrin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law. The Welsh Government must have due regard to the UNCRC when exercising any of its functions. That includes Article 31, the right to play and relax.

We are immensely proud of the fact that Wales is seen as a world leader in the field of play. We don't just respect children's rights under Article 31, we were the first nation in the world to put play on a statutory footing. Local authorities must assess and, where practicable, secure sufficiency of play opportunities to meet the needs of families in their area.

The Welsh Government places great value on play and its importance in the lives of children in our society. We believe that children have a fundamental right to be able to play, and that play is central to their enjoyment of life and contributes to their well-being. We also believe that play is essential for the growth in children's cognitive; physical;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There is much evidence to support this belief and an increasing understanding of play's contribution not only to children's lives, but also to the well-being of their families and the wider community.

Children's right to play is enshrined in Article 31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The Welsh Government formally adopt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2004, and we are committed to making the principles of the UNCRC a reality for all children and young people.

There are three articles which particularly relate to this duty:

- **Article 31 (Leisure, play and culture):** Children have the right to relax and play, and to join in a wide range of cultural, artistic and other recreational activities², which must be read in combination with the General Comment No17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leisure, play, recreational activities, cultural life and the arts (art. 31): "The general comment seek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article 31 for children's well-being and development; to ensure respect for and strengthen the application of the rights under article 31"
- **Article 15 (Freedom of association):** Children have the right to meet together and to join groups and organisations.
- **Article 12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When adults are making decisions that affect children, children have the right to say what they think should happen and have their opinions taken into account.

In Wales play is established as one of children's rights under Core Aim 4 - Play, Sport, Leisure and Culture, of the Welsh Government's 7 Core Aims for Children, set out in Children & Young People: Rights to Action, 2004.

The Welsh Government also believes that high quality play opportunities for all children may contribute to mitigating the negativ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s lives and help to build their resilience. Play can also be a means of reducing inequalities between children living in families that can afford costly recreational provision and those that cannot so reducing poverty of experience for all children.

The Welsh Government wishes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ales where children have excellent opportunities to play and enjoy their recreation time.

Our Play Policy states that:

"Play is so critically important to all children in the development of their physical, social, mental, emotional and creative skills that society should seek every opportunity to support it and create an environment that fosters it. Decision making at all levels of government should include a consideration of the impact of those decisions, on children's opportunities to play."

Through legislation we want every child to have a wide range of challenging and interesting opportunities to play and enjoy their leisure time. "Wales - a Play Friendly Country" is the statutory guidance for local authorities on assessing for and securing sufficient play opportunities for children in their areas. In November 2012, we placed a duty on all Local Authorities to assess the sufficiency of play opportunities for children in their areas. In 2014, we commenced the duty on Local Authorities

to secure sufficient play opportunities, having regard to their assessments.

Wales is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establish such a duty within its legislative framework, so there are no precedents for this work. To achieve a play friendly society that offers a wide range of play and recreational opportunities it is necessary for all partners within the community to work together for this purpose.

The Welsh Government encourages Local Authorities to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play in children's lives and make a firm commitment to work strenuously within their own structures; with partner organisations; with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to ensure that children have access to the play opportunities that they want and have a right to expect.

서울 창의어린이놀이터 연구:
아동놀이 행동에 대한 긍정적 효과

A Study of Seoul Creative Playgrounds:
Positive Effects on Children's Play Behaviors



김명순

한국 (KOREA)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부속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장

Professor,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

Myoung Soon KIM

서울 창의어린이놀이터 연구: 아동놀이 행동에 대한 긍정적 효과

아동이 놀이를 하기 위해 필수 전제조건은 놀이할 시간과 공간이다. 일천만명이 사는 대도시 서울의 경우, 아동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바깥놀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특히 힘든 일이다. 서울시에는 대한민국 0-14세 아동의 약 16%가 살고 있다. 서울에서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법적으로 한 대당 11.5㎡의 주차 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50명 미만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은 바깥놀이터를 법적으로 갖추지 않아도 되고, 50명 이상 재원아가 있는 기관은 영유아 1인당 3.5㎡의 놀이터를 규정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15조 2항). 즉, 영유아 3명이 놀 수 있는 바깥놀이 공간보다 자동차 한 대의 주차공간이 더 넓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아이들의 현주소이다.

서울시는 인구와 자동차 증가로 인해 점점 줄어드는 아동의 바깥놀이공간을 지역사회 내에서 확보하고 실내보다는 바깥놀이의 중요성과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창의어린이놀이터 정책을 2014년부터 시작하였다. 2015년 1단계로 26개 창의어린이놀이터가 완성되었고 2016년에는 18개, 2017년에는 20개, 2018년에는 18개가 완공되어 총 82개의 놀이터가 25개 지자체에 설치되었다. 현재 5단계의 17개 창의어린이놀이터가 2019년 말경에 완공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창의어린이놀이터 가이드 라인'(2017.6)을 발간하여 모래나 물처럼 구조성이 낮은 놀이재료 사용을 장려하고 모험과 상상을 경험하도록 하며 다양한 지형이나 비정형화된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어린이놀이터 중 기존의 놀이터와 창의어린이놀이터가 어떻게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 놀이터에서 노는 아동의 놀이행동과 신체활동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는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수행되었다. 놀이터 선정은 2017년까지 완성된 창의어린이놀이터 중 22개소를 선정한 후 창의놀이터와 같은 지자체에 있으면서 면적, 주변 주거 환경이 창의놀이터 환경과 유사하고 창의놀이터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일반 어린이놀이터 22개소를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어린이놀이터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김명순 외(2018)의 실외놀이터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를 활용하였고, 아동의 신체활동량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가 높게 보고된(Oliver et al., 2007) 만보기(Yamax New Lifestyle Digi-Walker SW-701)를 아동이 착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아동의 신체활동 수준 및 유형을 평정하기 위해 OSRAC-P (Brown, et al., 2006) 관찰지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의 놀이행동은 기능놀이, 구성 및 상상놀이, 거친신체놀이, 규칙이 있는 게임으로 구분하여 관찰하였다. 관찰자는 한 놀이터를 주중에 2번 주말에 1번 방문하여 일회에 3시간씩 총 9시간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44개 놀이터에서 총 396시간동안 관찰이 이루어졌다. 또한 일회 3시간동안 아동 놀이를 관찰할 때 매 1시간 마다 총 3회에 걸쳐 놀이터 이용 중인 아동 총 수를 기록하였으며, 놀이터에 있는 부모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놀이터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놀이터에서 관찰한 아동의 수는 총 332명(창의놀이터 176명, 기존놀이터 156명)이었고, 실태에 응답한 초등학교생과 성인은 총 438명(창의놀이터 237명, 기존놀이터 201명)이었다. 관찰자들은 대학원의 아동놀이이론 수업을 수강하였고, 관찰자 훈련과 실습시간을 거친 후 관찰자간 일치도를 산출한 총 11명의 대학원생들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놀이터와 기존놀이터 44개소의 질적 수준 점수는 최대 150점 만점 중 143점~79점까지 다양하였다. 놀이터 평정 총점은 창의놀이터가 123.6점($SD = 10.95$), 기존놀이터가 111.7($SD = 14.64$)이었는데, 창의놀이터가 기존놀이터에 비해 질적 수준이 더 높았다($t = 3.05, p < .05$). 두 유형의 놀이터 모두 '안전 및 편의시설관리'에 대한 하위 영역점수가 가장 높아 본 연구대상의 놀이터는 모두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점검,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창의놀이터가 기존놀이터에 비해 다양한 고정놀이기구를 설치하고 있었고 놀이터내 지형이 다양하며 놀이터의 바닥 표면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의놀이터가 기존 놀이터에 비해 오르내리기, 매달리기, 균형잡기 및 도전하기 등의 위험감수놀이를 더 조장하는 시설이 많았고, 다양한 놀이를 격려하거나 다양한 연령이 놀이욕구를 충족하고 물모래놀이를 촉진하는 등의 경험을 더 제공하고 있었다.

넷째, 관찰자가 총 3회를 나간 중에 한명의 아동도 없었던 놀이터는 44개 중 총 4곳이었다. 그 중 창의어린이놀이터가 3곳이 포함되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접근성이 낮고(골목들 사이에 위치해 잘 찾기 어려움, 언덕위에 위치, 인적이 드문 길에 위치), 위험성(흡연객이나 오토바이 등 대로변에 위치), 청결(파리가 많거나 냄새 등) 등이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5단계 이상 창의놀이터를 선정할 때 놀이터 접근성이 좋고 위험성이 낮은 위치 선정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창의와 기존놀이터 모두에서 아동들은 걷기, 달리기, 뛰어오르기, 오르내리기 등 활발히 신체를 움직이며 놀이를 하고 있었다. 만보기를 착용한 총 332명 아동은 평균 1분당 49.17걸음을 하여 1.2초마다 한걸음씩 걸었고 이는 두 놀이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신체활동수준도 평균 3.11($SD=.72$)로 매달리거나 오르기, 느린 속도로 이동하기 등의 수준이었고, 두 놀이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실내놀이를 할 때 만 3, 5세 유아가 앉아있기와 같은 정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여혜옥, 2017)과 비교하면 놀이터에서 바깥놀이를

할 때 동적 움직임을 많이 보이는 바람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신체활동수준 1~5수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5수준의 경우, 창의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기존놀이터의 아이들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한편 '위험감수 및 도전적 놀이시설'을 많이 설치한 놀이터에서 아동은 뛰어오르기($r = 10, p < .05$)나 구르기($r = 14, p < .01$), 균형잡기($r = 13, p < .05$) 등의 활발한 신체활동을 더 많이 하였다.

여섯째, 창의놀이터에서 기존놀이터보다 아동은 구성 및 상상놀이를 더 많이 하였고, 대소근육을 움직이는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특히 물모래놀이영역이 있거나 자연물활용이 용이할 때 구성 및 상상놀이를 더 많이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바깥놀이터를 설치할 때 주민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과 모래놀이영역은 적극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일곱째, 창의놀이터와 기존놀이터에서 한 시간마다 이용 아동 수를 3번 집계하여 평균을 낸 결과 7.69명으로 나타났다. 창의놀이터의 경우는 9.06명, 기존놀이터는 6.26명이었다. 연령별로 영아(만0~2세), 유아(만3~5세), 초등(만 6~12세)로 구분하여보면, 초등학생들은 4.20명, 유아들은 평균 2.21명, 영아들은 1.28명으로 나타나 놀이터에서는 다양한 연령이 함께 놀이를 하고 있었고 특히 초등학생이 많이 놀고 있었다. 이를 놀이터 질적 수준 평정점수와 관련지어 보았을 때 놀이터의 위치 및 접근성이 좋을수록, 위험감수 및 도전적 놀이시설이 많을수록, 안전관리가 잘 될수록 이용 아동수가 유의미하게 많았다.

여덟째, 놀이터를 1회 방문하였을 때 얼마나 오랜 시간 놀이를 하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창의놀이터에서 영유아가 논다는 성인의 응답은 89.27분이었고, 기존놀이터에서는 70.69분으로 나타나 유의미하게 창의놀이터에서 더 오래 노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79, p < .05$). 초등학생들도 창의놀이터에서 134.96분 놀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기존놀이터에서는 99.38분 논다고 응답하여 약 36분을 더 창의놀이터에서 길게 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91, p < .05$).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5년째 시행하고 있는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은 아동의 놀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창의어린이놀이터는 더 활발히 지속되고 확대되어야 하며 놀이터 조성 시 아동놀이 행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놀이터 담당 공무원이나 놀이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 놀이 관련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놀이터의 설치와 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내 바깥놀이의 중요성 및 활성화, 질 높은 놀이터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김명순·최지혜·김지연(2018). 실외 놀이터 수준 평가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8(3), 327- 348.
- 여혜옥(2017). **실내·외 놀이환경에 따른 유아의 놀이행동과 신체활동성 간의 관계**. 서울, 한국: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rown, W. H., Pfeiffer, K. A., McIver, K. L., Dowda, M., Almeida, J. M., & Pate, R. R. (2006). Assessing preschool children's physical activity: The Observational System for Recording Physical Activity in children-preschool version.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77(2), 167-176.

A Study of Seoul Creative Playgrounds: Positive Effects on Children's Play Behaviors

Availability of time and space for play is a precondition for the realization of children's play. Seoul, a metropolitan capital city, in particular, finds it difficult to secure outdoor spaces for children's safe and fun play. In Seoul, about 16% of the nation's children aged 0–14 reside. In order to accommodate ever-increasing automobiles, at least 11.5m² is legally required per vehicle for parking in Korea. Daycare centers hosting fewer than 50 young children, however, are not legally required for outdoor playgrounds, and those with 50 or more should have 3.5m² per child of outdoor play space (Article 15.2 of the Childcare Act). In short, one car parking space is regulated to be larger than a space where three children can play.

As suc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began the Creative Children's Playground (hereinafter, "Creative Playground") initiative in 2014 in order to make qualified outdoor play environment in local communities and to raise public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outdoor play. The twenty-six Creative Playgrounds were completed in 2015 for Phase I; 18 in 2016; 20 in 2017; and 18 in 2018, completing the construction of 82 Creative Playgrounds in 25 Districts of Seoul. Currently 17 more Creative Playgrounds are under construction awaiting opening by the end of 2019 for Phase V. The SMG published "Creative Children's Playground Guideline (June 2017)", encouraging the use of unstructured materials such as sand and water, promoting imaginative play and taking risks without being hazardous, and exposing children to increase physical movement and spontaneous play behaviors.

This study compared 22 Creative playgrounds and 22 conventional playgrounds in Seoul in order to identify how conventional and Creative Playgrounds are different, in

terms of the quality of playing outdoors, types of children's play, physical activities, and number of children observed in play spaces.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March to July in 2018. The 22 Creative Playgrounds were selected from those completed by the end of 2017, which were compared with closely located 22 conventional playgrounds installed in the same district with surrounding residential environments similar to those of Creative Playgrounds.

The playground environment was evaluated by Korean-Outdoor Playground Quality Assessment(Kim et al., 2018) and the amount of children's physical movement was measured by a pedometer (Yamax New Lifestyle Digi-Walker SW-701) that had been reported to be highly reliable in measuring (Oliver et al., 2007). In addition, the observational form of OSRAC-P (Brown, et al., 2006) was utilized to assess the level and type of children's physical activities. The types of children's play were divided into functional, constructive and imaginative, rough and tumble play, and play with rules. The 11 observers visited to a playground twice during weekdays and once during weekend for three hours per visit. Therefore, a total observation of 396 hours were carried out at 44 playgrounds. The observers recorded the total number of children engaged in play of the outdoor every hour, counting the number three times, while surveying parents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present at the playground on how they utilize the playground. A total number of 332 children were observed (176 at Creative; 156 at conventional playground) and 438 children and parents reported the questions (237 at Creative Playgrounds; 201 at conventional playgrounds).

The study found the followings.

First, the quality of 44 outdoor playgrounds varied from 79 to 143 out of 150 full mark. The average of Creative Playgrounds scored 123.6 points ($SD = 10.95$), while conventional playgrounds scored 111.7 points ($SD = 14.64$). Ther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reative Playgrounds and conventional ones ($t = 3.05, p < .05$).

Second, Creative Playgrounds were equipped with more diverse play equipments, ground topology, and surface materials than conventional playgrounds.

Third, Creative Playgrounds had more risk-taking equipments such as climbing (up/down), hanging, balancing, and challenging, encouraged more diverse types of play, satisfied more diverse play desires, and exposed children to more water/sand play than conventional ones.

Fourth, we could not observe any child at four playgrounds out of total 44 during all of the three scheduled visits, which included three Creative Playgrounds. The playgrounds had several problems: low accessibility (as it is located between alleys, on top of a hill, or along the road with few passers-by); danger (exposure to smokers and motorcycles

or along the side of a large traffic road); and uncleanness (lots of flies and bad odors). As such, in planning the location of playgrounds to be open in Phase 5 and further, good accessibility and low risk must be required determining factors.

Fifth, in both the playgrounds of Creative and conventional, children were engaged in active physical movements including walking, running, jumping, climbing up & down. Total 332 children wearing a pedometer walked 49.17 steps per minute on average. The level of physical activities was average 3.11 ($SD = .72$). Compared to young children's stationary movement such as staying sitting at indoor plays (Yeo, H., 2017), it is a desirable result with children making active movements at outdoor. Level 5, the fastest movement in physical activity levels, was statistically more visible in Creative than in conventional playground. Meanwhile, in playgrounds installed with diverse 'risk-taking and challenging play facilities', children were engaged in more actively physical activities such as jumping up ($r = 10, p < .05$), rolling ($r = 14, p < .01$), and balancing ($r = 13, p < .05$) than those without.

Sixth, children engaged in more constructive and imaginative plays at Creative Playgrounds than at conventional ones and used more large and small muscles. Availabilities of natural play materials such as water and sand prompted children to engage more actively in constructive and imaginative plays. Therefore, installation of water and sand play sections is strongly advised for future playgrounds.

Seventh, the number of children present in both types of playgrounds turned out to be 7.69 per hour; 9.06 for Creative Playgrounds and 6.26 for conventional playgrounds. By ages (infants: 0–2; preschool children: 3–5; elementary school children: 6–12), elementary school children numbered 4.20 on average, preschool children 2.21, and infants 1.28, displaying a wide range of age groups engaged in play at playgrounds. Higher scores of the quality of outdoor playgrounds such as good location and accessibility, the number of risk-taking equipments, and safe management, more children played there.

Eighth, when asked how long they played playground per visit, adults with their infants/preschoolers answered 89.27 minutes for Creative and 70.69 for conventional playgrounds, spending significantly more time in the former ($t = 2.79, p < .05$).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swered that they played 134.96 minutes per visit at Creative and 99.38 minutes at conventional, spending about 36 minutes more in the former ($t = 2.91, p < .05$). In conclusion, the Creative Playground project had a positive effect on children's outdoor play. Therefore, Creative Playgrounds must continue to be built more, and designed to allow children's valuable play experiences. Moreover, training for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playgrounds and play workers including educator,

designers, administrators, and parents should be provided on an ongoing basis to inform the importance of outdoor play and the quality of play environments within communities.

〈References〉

- Kim, M. S., Choi, J., & Kim, J. Y. (2018). The development of Korean–Outdoor Playground Quality Assessment Scal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8**(3), 327–348.
- Yeo, H. W.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lay behavior and physical activity in indoor and outdoor play environment. Seoul, Korea: The master's thesis at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Brown, W. H., Pfeiffer, K. A., McIver, K. L., Dowda, M., Almeida, J. M., & Pate, R. R. (2006). Assessing preschool children's physical activity: The Observational System for Recording Physical Activity in children–preschool version.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77**(2), 167–176.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어린이 친화도시' 실행 계획 : 목표와 실행수단

Action Plan "Child Friendly City" of the City of Wolfsburg :
Objectives and Measures



비앙카 리그너

독일 (Germany)

볼프스부르크 청소년복지국 아동청소년 상임위원
Child and Youth Office of Stadt Wolfsburg

Bianca LIEGNER

아동친화적 볼프스부르크 커뮤니티에서의 도심 놀이터 계획

Urban Playground Planning
in the Child Friendly Community Wolfsburg



앙겔리카 뵘트허

독일 (Germany)

볼프스부르크 청소년복지국 아동청소년 상임위원
Child and Youth Office of Stadt Wolfsburg

Angelika BÖTTCHER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어린이 친화도시' 실행 계획 : 목표와 실행수단(비앙카 리그너)

아동친화적 볼프스부르크 커뮤니티에서의 도심 놀이터 계획(앙겔리카 뵘트허)

아동 및 가족 친화적인 생활 환경은 도시지역 거주지 선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다. 볼프스부르크 시는 UN 아동권리협약(UN CRC)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도시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해 2012년 독일 아동친화도시사업(CFCI, Child Friendly City Initiative)의 일환으로 진행된 “아동친화도시” 인증 프로그램에 신청하였다. 이와 동시에, 볼프스부르크 시는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볼프스부르크 시의 경험을 독일 전역에 전파하고자 하였다. 2012년 볼프스부르크 시의회는 CFCI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를 승인하였다. 이후 2년 간(2012년- 2014년) 야심 찬 이행계획이 마련되었다. 2014년 10월 말 시의회의 승인 이후, 2014년 11월 25일, 볼프스부르크 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이행계획은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이행된다. 볼프스부르크 시는 인증 프로그램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2021년 이후에는 볼프스부르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영구사용하고 홍보할 수 있다.

이행계획의 목표는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구조를 확대 및 강화하고, 니즈에 기반한 참여의 형태를 도입하고, 볼프스부르크에서의 참여기회를 확대 및 최적화하는 것이다.

이행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를 위한 관리자(moderator) 교육
- 정기적인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포럼 개최
- 어린이 의회(Children's Council) 설립
- 시정부의 위원회에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 촉진 (예, 청소년 복지위원회(Youth Welfare Committee) 혹은 아동청소년 위원회(Children and Youth Commission))

이행계획의 수행은 볼프스부르크 시 아동청소년국(Child and Youth Office)이 담당한다. 볼프스부르크 시는 아동권리협약 제 12조에 의거한 참여 권리의 이행에 집중하며, 아동청소년국은 참여 절차에 착수, 이행하고 참여 절차를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따른 참여 방법을 적용하고 시정부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소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시정부와 정치의 구조를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청소년국은 또한, 아동, 청소년 및 가족의 연락 창구로서 민원 처리 업무도 담당하며 볼프스부르크 내의 참여 기회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행계획의 또다른 중요한 축은 현대적인 놀이터 개념의 개발로, 공공 공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미래의 놀이터 개념은 기존의 놀이터와 축구장의 범주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놀이터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 놀이의 특성, 놀이터 및 축구장 접근성, 안전성, 다양한 연령의 사용) 볼프스부르크 시는 놀이터 관리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시민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언제든지 놀이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유지보수 활동을 진행한다.

아동청소년국은 볼프스부르크 시 공원관리과와 긴밀하게 협조한다. 신규 개발지역에 새로운 놀이터를 마련하거나 기존 놀이터를 레노베이션 하는 경우, 놀이터 계획 수립단계부터 어린이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국 및 공원관리과 직원뿐 아니라, 담당 조경사가 도심지역 놀이터 계획 수립에 참여한다. 모형구성을 통해 어린이들은 자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바를 바탕으로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를 만들 수 있다. 조경사는 어린이들의 니즈에 따라 놀이기구를 배치하고 초안을 작성한다. 작성된 초안을 초기 계획 단계에 참여한 아이들과 부모, 지역 정치가에게 제시하고, 변경사항이 없다면 아이들의 아이디어에 따라 놀이터를 건설한다.

볼프스부르크 정보:

볼프스부르크 인구 125,244명 중 0세 - 18세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의 수는 20,223명이다.

- 160개의 놀이터와 56개의 축구장
- 5개의 청소년 센터
- 5 개의 레저 센터
- 3 개의 청소년 클럽
- 3 개의 교육학적 자문을 받은 놀이터

Action Plan “Child Friendly City” of the City of Wolfsburg : Objectives and Measures(Bianca LIEGNER)

Urban Playground Planning in the Child Friendly Community Wolfsburg(Angelika BÖTTCHER)

Child and family friendly living conditions are a crucial location factor for the municipal economy. The City of Wolfsburg has applied for the award of “Child Friendly City” at the Child Friendly City Initiative in Germany in 2012 in order to implement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according 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at the local level. At the same time, the City of Wolfsburg wants to contribute with its experiences in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to a countrywide exchange. In 2012 the City Council of Wolfsburg has approved participation as a pilot project in the Child Friendly City Initiative. Within two years (2012–2014) an ambitious action plan has been developed. Following the approval by the City Council at the end of October 2014, the City of Wolfsburg received the award “Child Friendly City” on 25th November 2014. The action plan will be implemented from November 2014 to November 2018. The City of Wolfsburg decided to prolong the award for three years from 2019 to 2021. As of 2021 the City of Wolfsburg can permanently use and promote the award “Child Friendly City”.

The action plan aims to extend and to strengthen the participation structure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to implement needs-oriented forms of participation and to enlarge and to optimize participation offers in Wolfsburg.

The following measures support the objectives of the action plan:

- Training moderators for child and youth participation
- Implementing of regular youth consultation and youth forums
- Establishing a Children’s Council
- Promoting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municipal committees
(e.g. the Youth Welfare Committee or the Children and Youth Commission)

The Child and Youth Office of the City of Wolfsburg i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ion plan. The latter focuses on implementing the right to participation according to Art. 12 of the CRC. The Child and Youth Office is in charge of initiat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participation procedures. It is also responsible for applying participation methods corresponding to the level of development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for introducing municipal and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dures to children and young people. The aim is to render the structures of city administration and politics more tangible to them. Moreover, the Child and Youth Office acts as a contact point and complaints office for children, young people and families. It also provides information on participation opportunities in Wolfsburg.

Another important measure of the action plan is the development of a contemporary playground concept, which will be based on an integrated approach with regard to public space. The future playground concept will include a categorisation of playgrounds and soccer fields. Therefore, quality criteria have to be developed (e.g. quality of play, accessibility of playgrounds and soccer fields, safe ways, multi-generation usage). The City of Wolfsburg promotes citizens' involvement in taking on responsibility for playgrounds. The voluntary engagement of citizens includes ordinary maintenance measures on playgrounds in order to secure playability.

The Child and Youth Office closely collaborates with the Parks Department of the City of Wolfsburg. In case of establishing new playgrounds in development areas or renovation of playgrounds, children can regularly participate in the playground planning.

Not only the employees of the Child and Youth Office and the Parks Department, but also the responsible landscape architect participates in the urban playground planning. By using model building, children can create their favorite playground according to their wishes and needs. The landscape architect will draft and arrange the play equipment pursuant to children's needs. The playground draft is presented to the children involved in planning, as well as to parents and local politicians. In case there are no changes, the playground will be constructed based on the ideas of the children.

Facts and Figures about Wolfsburg:

Wolfsburg has 125,244 inhabitants, thereof 20,223 children aged between 0 to less than 18 years.

- 160 playgrounds and 56 soccer fields
- 5 youth centers
- 5 leisure centers
- 3 youth clubs
- 3 pedagogically-supported playgrounds

서울 4개 지역에서 나타난 아동놀이패턴 유형 :

어떤 동네환경이 일상 속 놀이를 지원하는가?

Child Play Patterns of Four Neighborhoods in Seoul :
How Neighborhood Environment Supports Daily Play Activities?



최이명

한국 (KOREA)

두리공간연구소 연구실장

Senior-researcher of Durispace

Yeemyung CHOI

서울 4개 지역에서 나타난 아동놀이패턴 유형 : 어떤 동네환경이 일상 속 놀이를 지원하는가?

연구배경

최근 놀지 못하는 아이들의 일상과 이로 인한 병리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아이들의 놀이 회복을 위한 시도들이 교육청, 학부모, 지자체 등을 통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학교일과 중 중간놀이시간의 확보, 통합놀이터, 모험놀이터 등 가치 지향적이며 상징적인 놀이장소들의 조성, 놀이시간의 직접적인 확보를 위한 학부모 주도의 방과 후 자율놀이터 운영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아이들에게 여전히 매일 나가노는 일상이란 요원해 보인다. 여기에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의 감소는 부족한 바깥놀이 활동을 더욱 빠르게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그들의 동네이다. 아이들의 일상에서 놀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끔 갈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생기는 것보다는 늘 걷고 있는 학교와 집 근처에서 마주치는 장소들이 놀기 좋은 공간으로 변화하는 쪽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아이들의 동선이 속해 있는 동네 전체를 놀이터로 보고, 부분적 개선이 아이들의 생활동선과 만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고려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이 동네에서 걷고 있는 경로 속에서 놀이가 전개되는 패턴을, 시간과 공간 사용의 관점에서 밀도 있게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목적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이 연구를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아이들의 동네 놀이 활동에서 장소와 시간 사용에 대한 보편적인 패턴들이 존재하는지 관찰하고, 이를 유형화시켜 설명함으로써 아이들의 일상 속 동네활용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정 시간 이상의 놀이시간을 확보한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간에 놀이패턴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바깥놀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아이들의 시-공간 사용특성과 그들이 처한 놀이환경 조건을 파악함으로써 놀이활동을 매개하는 물리적 환경요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성적인 해석연구이다. 대상지는 서울 4개 지역의 초등학교(신서, 이문, 봉천, 성서초교) 주변 환경이며, 자료수집대상은 해당 통학군 내 거주하는 초등학교 1-4학년 아이들이다. 대상지 선정시 최대한 다양한 놀이행태를 포착할 수 있도록 주거유형과 오픈스페이스 분포, 경사 등이 차별화될 수 있는 지역을 고려하였다. 자료수집 시기는 2017년 9월-11월이며, 분석에 사용된 최종 유효샘플 수는 94개이다.

행태실증자료에는 참여자들이 수기로 작성한 일주일간의 통행일지와 같은 기간 동안 소지한 GPS기기에 기록된 이동경로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연구에 참여한 아이들의 바깥놀이시간, 주요놀이상대, 주로 방문하는 놀이장소, 장소까지의 이동수단, 놀이장소의 방문빈도 및 이용시간대, 부모로부터의 독립성, 자유시간의 존재 등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동네 놀이행태를 가장 현실과 가까운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결과

1. 놀이패턴에 대한 시-공간적 유형분류

총 94명의 기록으로부터 시간사용 관점에서의 패턴 4가지(가. 평일 규칙적인 시간 확보형, 나. 주말 또는 평일 1-2일에 몰아서 노는 유형, 다. 불규칙하게 노는 시간이 분산된 유형 라. 절대시간 부족으로 분류 불가능한 경우)와 공간사용 관점에서의 패턴 4가지 (A. 서로 다른 크기(위계)의 놀이장소 병행 이용, B. 단일 위계의 놀이장소 집중 이용, C. 주된 거점 없이 불규칙한 공간활용, D. 빈도부족으로 분류불가능)가 도출되었다. 시간사용 패턴에서는 평일 낮/평일 저녁/평일 낮+저녁 등 규칙적인 시간을 확보한 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 (38.3%)을 나타냈으며, 공간사용 패턴에서는 면적과 위계가 다른 놀이장소를 두 곳 이상 함께 이용한 유형이 가장 많았다(34.0%).

2. 놀이시간이 충분히 확보된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의 시-공간 사용 패턴비교

주당 300분 이상 바깥놀이를 한 아이들(1그룹)과 주당 놀이시간 120-300분인 아이들(2그룹)의 시간-공간사용 조합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1그룹에 속한 아이들의 경우 규칙적인 놀이시간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위계의 놀이장소를 활용하는 (가)-A 유형이 32명 중 19명(60%)으로 두드러지게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반면, 2그룹에서는 규칙적으로 논 아이들(20.5%)보다 몰아서 놀거나(43.5%), 정해진 시간 없이 불규칙하게 논 경우(30.7%)가 더 많이 관찰되었다. 그룹별 놀이패턴 분포의 차이는 “다양한 위계의 장소”를 향한 “좋은 접근성”이 놀이의 지속과 충족을 위한 기본 환경조건임을 시사하고 있다.

3. 충분한 놀이시간이 확보된 그룹의 놀이환경 특성

1그룹과 2그룹 사이의 놀이환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놀이장소까지의 거리이다(1그룹 평균 100m미만, 2그룹 평균 약230m). 이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놀이시간 확보를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었다. 1그룹에 속한 아이들 중에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놀이장소까지의 거리가 250m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규칙적으로 놀고 있는 사례가 상당하다. 특히 학교운동장 또는 학교와 인접한 민간/공공 놀이터를 거점으로 삼는 경우 집 주변 놀이장소의 부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밝혀진 다양한 위계의 놀이장소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놀이장소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학교 인접환경 및 학교의 역할과 태도가 아이들의 놀이행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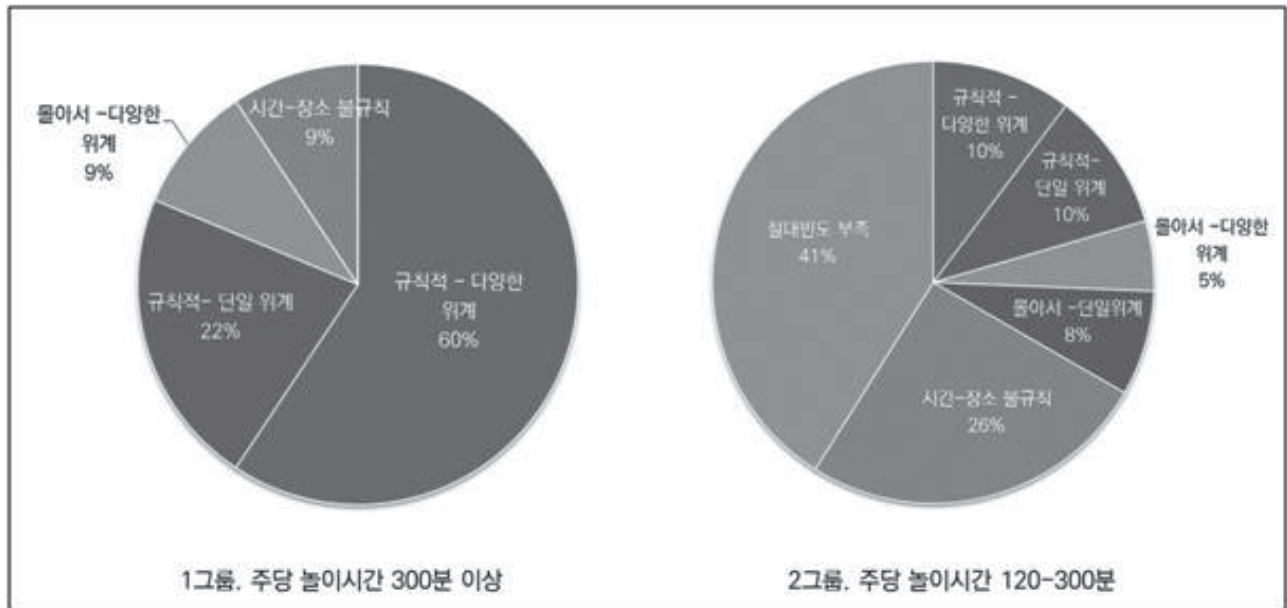


Figure 1. 충분한 놀이시간이 확보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시-공간사용 패턴의 차이

결론

충분히 노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평일에 규칙적으로 놀고, 다양한 위계의 놀이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주말이나 평일 1-2일에 몰아서 놀거나 틈틈이 노는 아이들의 경우 이들의 놀이시간을 따라잡기 어렵다. 집에서 놀이터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면 유리한 조건임에 틀림없지만, 규칙적인 놀이시간의 확보는 예상보다 다양한 공간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 집 주변 놀이장소가 부족한 경우 학교의 활용가능성과 제3의 공간(골목, 공터 등)의 이용에 따라 공간적 불리함이 극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놀이시간 회복을 위한 해법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기대어야 하므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새로운 공간조성이나 기구교체 등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많은 아이들이 고정적인 시간대에 자주 이용하는 지금, 그 곳의 환경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내용은 벤처기부펀드 씨프로그래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과제 '동네 놀이환경 진단도구 개발연구(2018)'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Child Play Patterns of Four Neighborhoods in Seoul : How Neighborhood Environment Supports Daily Play Activities?

Background

Recently, the lack of play in children's daily lives and the consequent pathologies have become social issues. Diverse attempts to regain children's playtime have been made by The Office of Education, parents, local governments and such. Such efforts include putting playtime in the curriculum, constructing integrated/adventure playgrounds, and operating "free-playtime" after school under the guidance of some parents. Nevertheless, playing outdoors everyday still seems far-off for most children living in cities in Korea.

Children spend most of their time in their neighborhood. So making places met on a daily routine more "play-friendly" would be more effective in regaining daily playtime, rather than creating a new special play space which they can only visit once in a while. In planning,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a neighborhood as a whole is a playground to children and how renovating parts of it would influence their daily routes. Thus, an in-depth study of time and space usage of children's play in their daily movement should be preceded.

Objectives

This study has two objectives. First is to categorize the children's play patterns in terms of time and space usage and provide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ir daily use of the neighborhood. Second is to find out differences in play patterns between the children with/without enough playtime and to deduce implication for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supporting outdoor play by analyzing the play patterns and environment of the children with enough playtime.

Methods

This study is a qualitative analysis study based on empirical data. 1st to 4th-grade students residing within the school districts of 4 elementary schools in Seoul participated in the study. When selecting the research area,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types of residences, the distribution of open spaces, and the slopes were taken into account to capture as many different play patterns as possible. The period of data collection was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17 and 94 valid sampl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mpirical data on play behavior includes travel log kept for a week by the subjects and the GPS data of the routes for the same period. From the data, diverse and profound information on children's outdoor play is given which helps understand play behavior in the neighborhoods close enough to reality.

Results

1. Categories of play patterns in terms of time and space u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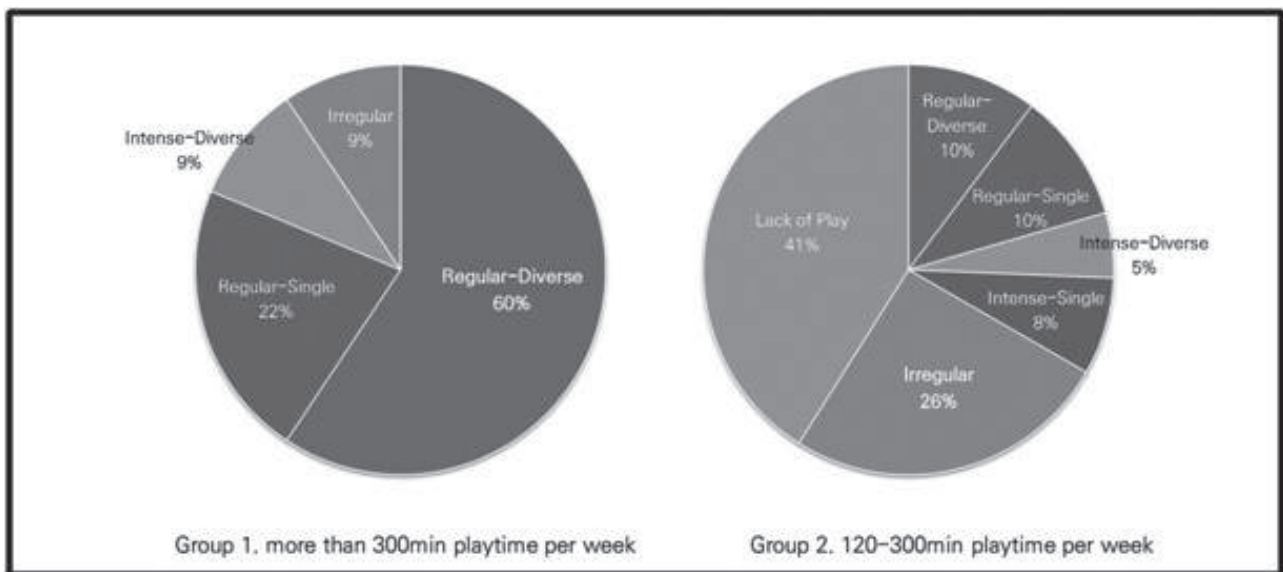
Four patterns of time usage (A, regular playtime on weekdays, B, intensive playtime only on 1–2 days, C, irregular and dispersed playtime, D, not classifiable due to lack of playtime) and four patterns of space usage (a, using play spaces of different hierarchies, b, using play spaces of single hierarchy only, c, irregular usage of spaces without a focus, d, not classifiable due to lack of play frequency) were derived from 94 samples. In time usage, the type with regular playtime on weekdays was the highest(38.3%). In space usage, the type using play spaces of different hierarchies was the highest(34.0%).

2. Comparison between the groups with/without enough playtime.

The subjects were sorted into two groups by the amount of outdoor playtime per week to compare the play patterns; 1) children with more than 300 minutes, 2) children with 120–300 minutes. A notable characteristic of Group 1 is that 19 out of 32(60%) were categorized type A–a, using play spaces of different hierarchies regularly on weekdays. Whereas, types with intensive playtime(43.5%) and irregular and dispersed playtime(30.7%) were more common in Group 2 than the type with regular playtime(20.5%). The difference in play patterns between the two groups suggests that 'accessibility' to 'diverse hierarchies of play spaces' is a basic condition to secure enough playtime and continuous play.

3. Characteristics of play environment of the group with enough playtime.

The most notabl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s that the average distance to the nearest play space is shorter in Group 1. Although this is an important factor, it isn't the most critical one for securing enough playtime. Many cases can be found in Group 1, in which children play regularly on weekdays even though the distance to the nearest play space is more than 250m from their home. Especially when the children's play is anchored on school playground or private/public playgrounds near the school, the lack of play spaces near home appears to be less important. This suggests that, along with the importance of play spaces of diverse hierarchies, the environment of school and the surrounding areas can be an important factor especially in the neighborhoods with not enough play spaces.



Conclusions

Many children with enough playtime played regularly on weekdays, using play spaces of diverse hierarchies. It is difficult for others with intensive or irregular play patterns to catch up the amount of time these children play. Regular playtime can be secured with the advantage of having a play space near home. However, even if there is no play space nearby, such disadvantage can be overcome by utilizing school playgrounds and 'the third play spaces'(alleys, empty lots, etc.) as shown in this study. To regain playtim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neighborhood must be taken into account. This means that we should focus more on improving the environment of the play spaces that are actually frequently used on a daily basis by children, rather than creating a new playground or replacing the playground apparatus with a huge budget.

This work uses baseline data from the Playable Neighborhood Index(2018), which was supported by C Program, Venture Philanthropy Fund.

지역별 특성에 따른 놀 권리 증진 활동

Region-specific Activities to Promote Right to Play



조윤영

한국 (KOREA)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

Director of Welfare Services Division of ChildFund Korea

Yun Young CHO

지역별 특성에 따른 놀 권리 증진 활동

“우리에게 놀이는 숨쉬기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놀이는 밥이고 물이며, 자유이고 행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동들의 놀 권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제발 놀 권리를 돌려주세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작년과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아동들이 직접 만든 공약을 제안하기 위해 진행했던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에 참여했던 한 아동의 말입니다.

우리 나라가 아이들의 숨 쉬기를 방해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도 이런 현실과 맥을 같이합니다.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고, 아동결핍지수는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한국아동들은 ‘여가생활부문’에서 가장 심한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생의 80%는 사교육을 받고 있고, 초·중·고등학생의 54.3%는 평일 여가 시간이 2시간 미만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놀이 실조’ 상황은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현실과 맞물려 한국 아동을 불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사회의 극심한 경쟁과 사교육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의 ‘놀 권리’를 침해한다며 한국 정부에 시정을 거듭 권고한바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라면 아동들이 놀이를 공기처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아동들은 놀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잃어버리고, 놀이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 속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아동들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아동의 놀 권리 회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NGO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협력 과정에 ‘아동’이 주인공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아동을 중심으로 놀 권리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왔던 놀 권리 증진 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학교 놀이환경 개선 <어디든 놀이터> <놀이키트>

한국 아동들의 놀이환경은 지역별로 차이가 큽니다. 초록우산 재단이 우리나라의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아동들의 '여가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라남도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재단은 전라남도 아동들의 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아동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놀이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동들과 함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호소문'을 작성해 지역사회의 의무 이행자에게 전달 했으며,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가 제정되었고 모두의 관심 속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들의 주요한 생활터전인 학교 내 놀이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공간을 아동 친화적인 놀이공간으로 개선하는 <어디든 놀이터>사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개선 할 공간을 선정하고 디자인 및 설계를 위한 회의까지 전 과정을 아동과 함께 진행한다는 것과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 할 의무가 있는 학교, 학부모, 교육청, 도의회, 놀이전문가 등이 연대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선생님들의 놀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정된 교실 내에서도 지속적인 놀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놀이키트>를 기획·제작해 배포 할 예정입니다. 어디든 놀이터 사업은 그 효과성에 힘입어 전남에 이어 광주, 경남, 경북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지역사회 놀이 환경 조성 <초록우산 팝업놀이터> <놀이지도>

놀이는 아동이 일방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를 통해 놀이문화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역 내 아동들의 놀이가 힘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단에서는 온 마을이 함께하는 <초록우산 팝업놀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인구수 대비 놀이터 비율이 낮은 광주와 경상남도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지역주민들에게 아동의 놀 권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아동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학교, 아동관련단체가 모였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동네만의 특별한 놀이를 기획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 내 아동들이 실컷 뛰어 놀 수 있는 놀이 장소, 놀잇감, 놀이 친구를 마련하여 독창적인 놀이터를 창조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놀 권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었고 지역만의 놀이문화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놀이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놀이 공간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놀이공간 및 유휴 공간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단은 우리동네 <놀이지도>를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지역 내 부모와 아동들이 놀이공간을 쉽게 찾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인식 및 제도 개선 <놀이터를 지키자> <놀이를 다시 보자>

2015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기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놀이터가 일제히 이용 금지되었습니다. 아동들의 안전을 위한 법이었으나 대책 없이 시행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없는 영세·소형 주택의 민간놀이터가 주로 이용금지 되었으며,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탓에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하는 사례도 늘고 있었습니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놀이터를 지키자> 캠페인을 진행하며 놀이터의 중요성을 알리고, 놀이터

폐쇄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서명을 모았습니다. 국민들의 서명과 함께 국가가 폐쇄 위기에 처한 놀이터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그 결과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 후보자에게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공약을 포함하도록 제안해 주요 정책에 반영되고 실행도 되고 있습니다. 법·정책 개선과 더불어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놀이의 가치를 공유하는 〈놀이를 다시 보자〉 공익광고를 제작해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4) 놀이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공평한 놀이 실현

거주지역, 보호자의 소득, 보호형태, 성별, 나이,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은 차별 없이 놀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놀이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다양한 지역과 공간에 다양한 형태의 놀이 공간을 만드는 일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놀이터 및 놀이 시설이 취약한 농어촌,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장애인복지관 등에 모든 아동이 함께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해 놀이에서 차별을 받는 아동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아동의 놀 권리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층위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힘을 모아 회복해야 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도 아동, 정부, 지역사회, 관련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해 아동들의 놀 권리를 지키는 데에 힘을 보탬 것입니다.

Region-specific Activities to Promote Right to Play

"Play is like breathing to us. To us, play is food, water, freedom, and happiness. But our country is taking away children's right to play. Please give us our 'right to play' back."

This is what one child said who took part in the "Vote From the Future" campaign, which was launched by the ChildFund Korea to propose public policies developed by children themselves to candidates in last year's Presidential and this year's mayoral/gubernatorial elections.

The child's comment brings home the bitter point that the country is obstructing the breath of children. The in-depth national survey on Korean children corroborates the reality Korean children face.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life for children is the lowest among the OECD member countries, while the child deprivation index was the highest. Korean children perceive themselves to be most distinguishably deprived of leisure in life. In fact 80%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are taking private lessons, and 54.3% of school-age children from elementary to high school have less than two hours of leisure time on weekdays. Such a significant "deprivation of play" is making Korean children unhappy, coupled with overly fierce competition in academics. Even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went out of the way to repeatedly recommend Korean government to rectify its policies as Korean society's extreme competition and private education infringe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play," which is safeguarded by the Article 31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y state that ratified the Convention must take all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at children can enjoy playing as if play is an air to them. But Korean children have been deprived of time and space for play, and endured pain under the social mores and system that fail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lay. This should not happen and it is a challenge the Korean society must tackle at once without delay. That is why ChildFund Korea is committed and devoted to projects that enhance children's right to play.

The cooperation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local community, and NGO is essential to restoring the right of the child to play. And what is the most important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that it should be the children that should be the focus of all attention. ChildFund Korea takes this opportunity to introduce some of its projects carried out with various stakeholders to promote right to play with the child at the forefront of attention.

1) Improving play environment in school: 〈Play Anywhere〉; 〈Play Kit〉

Play environment of Korean children vary significantly from region to region. According to ChildFund Korea's analysis of children's leisure activities in sixteen regions of local governments, South Jeolla Province had the lowest level of leisure activities. In response, ChildFund Korea launched a project to turn schools, where children spend most of their daytime, into a good space to play. First, we wrote a "petition to ensure the right to play" and delivered it to those responsible for the agenda in the community. As a result, the local government enacted the nation's first "South Jeolla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Ordinance to Guarantee the Right to Play," which is being implemented with the support of all. Moreover, we are carrying out the project 〈Play Anywhere〉, under which idle spaces are transformed into child-friendly spaces for play, an idea to solve the problem of lack of space for play in schools where children nurture their life. The key to success in all projects is that children join in the entire process and meetings from the selection of space to be renovated to design and that a coalition is built among the school, school-parents, local Office of Education, Provincial Council, and play experts, who are responsible for enhancing the rights of the child to play. Lastly, we plan to develop and produce 〈Play Kit〉, which aims to improve school teachers' awareness on play and to make it possible for children to play in classrooms with limited spaces. The 〈Play Anywhere〉 project has proven to be effective and expanded to other regions including Gwangju, South Gyeongsang Province, North Gyeongsang Province, following South Jeolla Province where the project was initially launched.

2) Creating play environment in communities: 〈ChildFund Popup Playground〉; 〈Play Map〉

Play is not something to be supplied to a child unilaterally. Play is a culture that should be restored by communities. That is how children's play in communities can be sustained with sufficient momentum. For this ChildFund Korea launched a project of 〈ChildFund Popup Playground〉, where the entire community members can participate. The project was launched first in Gwangju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places with relatively smaller number of playgrounds per child population. We ChildFund Korea suggested to create an environment together where children can play and have fun, carefree, while promoting the right of the child to play to local community residents. As time went by, community residents, schools, and organizations on children gathered and planned and implemented unique and special plays for the community together as one. The entire community brainstormed to come up with place to play at, items to play with, and playmates to play together so that children can play to their heart's content. This community-based and community-initiated process of creating unique playgrounds raised public

awareness on the right to play within the community and led to the creation of community-specific play culture. Also identified, while carrying out the project of building play-friendly communities, is the need to create a network of information on play spaces and idle spaces in the community to be shared with all so that play spaces for children can be utilized effectively. ChildFund Korea produced and distributed 〈Play Map〉 for each community, giving parents and children easy access to play spaces within the community and making effective use of existing play spaces.

3) Raising public awareness and improving public policies: 〈Let's Defend Playgrounds〉; 〈Let's take a look at play again〉

As the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Play Facilities」 was implemented in 2015, uninspected playgrounds for safety and substandard playgrounds were completely banned from usage. It was a law intended to protect the children, but implementation of that without alternative plans led to the shutdown of small, under-budgeted private playgrounds in most shut-down cases, also increasing the number of playgrounds turning into parking spaces, an attempt to save heavy maintenance costs. In response, ChildFund Korea launched a campaign, 〈Let's Defend Playgrounds〉, promoting the importance of playgrounds and collecting signatures from the public advocating against the shutdown of playgrounds. While collecting signatures on the one hand, ChildFund Korea submitted a peti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calling for a revision of law to provide budget subsidies for playgrounds at risk of shutdown. As a result, the revision passed the parliament and is now being implemented. We also made a proposal to political candidates in presidential, mayoral/gubernatorial, and parliamentary elections to help them publicly commit to the enhancement of children's right to play as part of their campaign pledge for future policy developments. In addition to the efforts to improve laws and policies, ChildFund Korea produced public advertisement, 〈Let's take a look at play again〉, to raise public awareness on play by sharing the value of play.

4) 'Leveling the playing field' by eliminating discrimination in play

All children must be empowered and entitled to play withou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esidential region, income of their parents, type of parenthood, age, disability, etc. ChildFund Korea is devoted to creating various play spaces in various regions and spaces so that no children will be isolated from carefree play. We are striving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nd ensure no children are left behind in play by creating play spaces in such places ill-equipped with playgrounds and play facilities as farming/fishing villages, orphanages, child protective custody facilities,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etc.

"The right of the child to play" must be protected and nurtured by all stakeholders together at multiple levels and dimensions on an ongoing basis. ChildFund Korea will do its part to defend the right of Korean children to play in close cooperation with children, governments, local communities, like-minded organizations, and business entities.

국가별 맞춤형 놀이터 및 확장성

Customising and Scaling Play Countrywide



마커스 베르만

호주 (Australia)

Playground Ideas 설립자 및 대표이사

Founder and CEO of Playground Ideas

Marcus VEERMAN

국가별 맞춤형 놀이터 및 확장성



Playground Ideas는 창립자 Marcus Veerman이 태국에서 거주하던 2007년 처음 설립되었으며 태국 - 미얀마 국경지역을 따라 다수의 놀이터를 건설하였다. Veerman의 전문성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Veerman이 전 세계를 직접 방문하고 필요한 자재를 운송하는 것이 시간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Playground Ideas가 태어나게 되었다.

Playground Ideas는 혁신적인 오픈소스 홈페이지와 DIY가 가능한 설계도와 매뉴얼을 제공하여 전 세계 가장 혹독한 지역의 약 2500개 이상의 커뮤니티에 혜택을 제공하였다. 주민들이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재를 활용하여 놀이터를 직접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 아이 당 미화 1달러 이하의 비용으로 **백만 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놀이터가 제공되었다. 이러한 혁신적인 모델을 통해 Playground Ideas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 첫 해에는 한 개의 국가에서 20개의 놀이터를 건설하였지만, 2017년에는 143개 국가에서 692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우리의 모델:

Do-it-yourself

놀이터 DIY 프로젝트가 우리 사업의 핵심이다. Playground Ideas는 놀이터 건설에 관련된 설계, 작업방법서와 온라인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여 전 세계 커뮤니티가 현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재만을 이용하여 아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놀이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DIY 모델을 사용하여 2,525개 이상의 놀이터가 마련되었고, 이는 약 140만명의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되었다.

맞춤화 된 디자인과 현장 지원

보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경우, Playground Ideas 팀이 계약을 체결하여 맞춤화 된 설계 및 현장 지원을 제공한다. 호주, 방글라데시, 브라질, 케냐, 인도, 파키스탄, 파푸아 뉴 기니, 필리핀, 르완다, 시리아, 태국, 베트남, 우간다에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설계 개념, 팀 연수 및 건설 지원을 제공하였다.

Global Play Alliance

놀이에의 접근(Access to play)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놀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인 (Play Advocates)의 협력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자원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부족한 커뮤니티들의 아이들을 위한 놀이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에 집중하는 기관들의 네트워크인 Global Play Alliance를 구축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가 고령화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모여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놀이 공간의 유형에 대해 더 세심하게 생각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동일한 유형의 놀이터를 짓고, 비슷한 학교에서 유사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비슷한 일을 아이들도 계속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이 향후 갖게 될 직업의 85%는 아직 존재 하지도 않는다. 신기술이 개발되어 농업 혹은 제조업과 같이 현재 우리 산업의 기반이 되는 수 많은 일을 대체하게 되고, 다른 많은 부문에서도 향후 50년 이내에 현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으며 우리는 예상하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크고 빠르게 진행되는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기술은 현재 우리에게 필요했던 기술과는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주어야 할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창의적 사고, 혁신, 문제해결능력과 같이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기술과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가장 잘 함양하기 위해서는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특히 취학 이전의 어린 나이에 다양한 놀이의 기회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놀이는 21세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도구를 제시할 수 있다.

양질의 놀이가 각 가정에서 시작되고 이후 보육시설을 거쳐 유치원, 학교에서 지속되지만, 놀이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보다 넓은 커뮤니티의 책임이기도 하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커뮤니티 그룹, 학교와 가족이 모두 협력한다면 단순히 놀이터를 통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행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정적인 놀이의 기회를 제공하는 즐거운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다.

Marcus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호주 멜버른의 지역 커뮤니티를 예로 들어, 도시 내에서 존재하는 모든 놀이의 기회를 파악해 보고 즐거운 도시는 어떤 모습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본 후, 동일한 시선으로 전 세계 다른 도시들이 제시하는 최고의 아이디어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생후 1주의 신생아부터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의 기회는 다음과 같다:

정부/지역자치단체 주최:

- 부모교육 프로그램
- 모자보건센터 및 놀이기반 프로그램
- 도서관 (이야기 구연 / 동요 프로그램) 및 장난감 도서관
- 지역 내 자연환경 (도심 공원, 국립 공원, 강, 산)
- 놀이 센터
- 놀이터
- 장난감 대여프로그램
- 시장
- 메가 블록
- 놀이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공공 공간

지역사회 주최:

- 놀이 그룹
- 페이스북 커뮤니티 예, Nature play그룹
- 보육시설
- 지역 내 건축물
- 집
- 놀이가 가능한 거리(Play Streets)

기업 주최:

- 놀이 센터
- 수영장
- 박물관
- 미술관 (예, National Gallery of Victoria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프로그램)
- 동물원
- 페스티벌 (코메디 페스티벌, 영화제 등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전용 프로그램)

놀이의 기회는 놀이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 정부, 기업, 뿐 아니라 물론 학교와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놀이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아이들이 즐겁게 자라날 수 있는 도시와 국가를 만들 수 있다.

Customising and Scaling Play Countrywide



Playground Ideas began when founder Marcus Veerman was living in Thailand in 2007 and built a number of playgrounds along the Thai–Burma border. Demand for his expertise quickly grew, however it was soon obvious that flying himself and the required materials around the world to build playgrounds was not an effective use of time or money. Nor was it a sustainable model for development.

And so Playground Ideas was born.

Through our innovative open source website and DIY plans and manuals, Playground Ideas has benefited over 2,500 communities in some of the harshest places on earth by equipping local people to build play spaces using locally sourced materials, impacting over one million children at a cost of less than \$1 per child. This innovative model has helped us grow exponentially from 20 playgrounds in our first year in 1 country to over 692 projects in 2017 in 143 countries worldwide.

Our model:

Do-it-yourself

Playground DIY projects are the core of our work. We were founded with a goal to provide free designs, how-to handbooks and online support to empower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to build beautiful spaces for their children to play using only resources they can easily find locally. Since 2007, over 2,525 playgrounds have been built using this model which equates to around 1.4 million children.

Custom design and on-site support

For larger projects, the Playground Ideas team can be contracted for custom design and on-site support. We've provided design schemes, team training and build facilitation for projects in Australia, Bangladesh, Brazil, Kenya, India, Pakistan,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Rwanda, Syria, Thailand, Vietnam and Uganda.

Global Play Alliance

Expanding global access to play requires a coalition of play advocates. That's why we've formed the Global Play Alliance, a network of organisations focused on creating play opportunities for children in communities where these resources do not exist or are in short supply.

Korea's ageing population means that there is less opportunity for children to gather and interact and so it is all the more important that we think critically about the kind of play spaces that we create. All over the world, we roll out the same type of playgrounds, the same types of schools and teach our children the same kinds of things. And we continue to expect that our children will do the same kinds of jobs that we ourselves do.

However, 85% of jobs that our children will do haven't been invented yet. New technologies are going to replace so many areas of work that have been the foundation of our industries whether agriculture or manufacturing etc and these and many other fields are going to change significantly over the next 50 years. Technology is experiencing exponential growth and the huge leaps that will happen, happen dramatically quickly at the end, making it almost impossible to anticipate.

Therefore, the skills our children require are very different to what was required of us. So just how do we future proof our kids?

The skills and attitudes that our children need are the ones that make us the most human... creative thinking, innovation, problem solving and the thing that does that best, is diversity of play opportunities from birth to adulthood, and particularly in the early years before school, giving children the tools they need to develop the skills required for 21st century living.

And while we believe that quality play interactions begin at home and continue in childcare centres, pre-schools and schools, we know that providing play opportunities is also the responsibility of the wider community. If governments, local councils, community groups, schools and families work together, we can create playful cities that give children regular play opportunities – not just through playgrounds – that can have huge impact on their long term wellbeing.

Marcus will explore what a playful city can look like, by taking his own local community in Melbourne, Australia and mapping out all the play opportunities within it and then extending this lens to some of the best ideas cities have around the globe.

From the time a baby is only weeks old until the time they are in secondary school, here are some examples of the play opportunities that exist:

Government/ council run:

- Parenting programs
- Maternal child health centres and play based programs
- Libraries (story/ rhyme time) and toy libraries
- Natural community resources (urban parks, national parks, rivers, mountains)
- Play centres
- Playgrounds
- Toy subscription boxes
- Markets
- Mega blocks
- Public space design made playable

Community run:

- Playgroups
- Facebook communities eg. nature play groups
- Childcare centres
- Local architecture
- Housing
- Play Streets

Business run:

- Play centres
- Swimming pools
- Museums
- Galleries (eg. children's program within the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 Zoos
- Festivals (dedicated children's program within for eg. comedy festival, film festival)

It's not just playgrounds that provide play opportunities. It's communities, governments and businesses as well as of course, schools and families. All working together to create the kind of cities and countries that we want our children to thrive in.

함께 만드는 친환경 놀이공간,
21세기 아동을 위한 해결책

Solutions for 21st Century Children in
Co-designing (green) Playspace



레넷 코르탈스 알테스

네덜란드 (Netherlands)

MakeSpace4Play 컨설턴트 및 오너

Consultant, Owner at Make Space 4 Play

Renet KORTHALS ALTES

함께 만드는 친환경 놀이공간, 21세기 아동을 위한 해결책

아이들은 도전과제가 가득한 시대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1. **아이들이 직면할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인 로봇화.** 30년 후면 기계 / 로봇이 우리 아이들보다 더 스마트해 질 것이다. 미래 세대의 아이들은 차별화된 스킬을 개발해야만 기계나 로봇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소프트 스킬 ('팀워크', '타인에 대한 배려', '가치관과 신념', '창의적 사고')과 21세기 스킬 (팀워크, 창의적 사고, 독립적 사고, 혁신 및 기업가 정신). 지식에 집중하는 것은 그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아이들에게 21세기 스킬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 과정을 개혁하고 있지만 사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이러한 스킬을 더 잘 습득한다. 놀이는 어린이들의 삶에서 가장 덜 노출된 측면 중 하나이지만, 다음 세기에 가장 필요로 하게 될 스킬을 개발하는 데에 놀이가 기여하는 잠재력은 매우 높다.

놀이는 아이들의 권리이다. 아이들은 놀이에 대한 생물학적으로 내재된 욕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놀이를 위한 시간과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2. **21세기 아이들이 직면하게 될 두 번째 도전과제: 도시화와 증가하는 불평등.**

도시 지역 거주인구의 수는 42억명에서 2050년이 되면 67억명으로 증가할 것이며 도시지역 거주 인구의 8명 중 1명은 33개의 메가시티(거주자 수 1천만명 이상)에서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도시화로 인한 혜택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지역 거주자 수 증가는 대부분 계획이 되지 않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지역에서 발생한다. 비도시지역에 비해서 도시지역에서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 아이들과 청소년이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빈곤과 불평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된다. 만나서 움직이고 놀이할 수 있는 안전한 공용공간에의 접근에 대한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 안전한 공용공간은 부유한 지역, 입장료가 있는 공원, 쇼핑몰, 혹은 카페와 연계된 곳에 위치해 있다. 아이들은 놀기 위해 돈을 내야 한다. 이러한 도시 지역의 증가하는 불평등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들을 통해 일부 해소되고 있다; 특히, SDG 11 목표(2030년까지)는 특히 여성, 아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가능한 녹색의 공용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늘어나는 도시 인구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된, 무료로 놀이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3. 21세기의 아이들이 직면할 세 번째 도전과제: 기후변화. 67억명의 도시 거주자는 보다 더 혹독한 기후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도시들, 특히 도시 스프롤 현상으로 인한 도시 외곽지역은 폭풍, 폭우 혹은 폭염과 같은 재난에 가장 취약하다. **회복탄력성이 보다 강한 도시의 필요성은 그 어느때 보다 증가하고 있다.** 주차장 혹은 학교 운동장과 같은 소위 회색 (포장된) 지역의 녹색화를 통한 개선 잠재력은 매우 높다. 도시 내 학교 운동장의 총 면적은 주요 도시공원의 면적과 맞먹는다. 학교는 그 성격상 매우 다양한 도시 구성원의 다수와 연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학교 운동장을 녹색화 하는 것은 전체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매우 균등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폭우로 인한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천천히 흘려 보낼 수 있는 도시의 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극심한 혹서기에는 도시의 열섬 효과를 상쇄하는 도심 오아시스의 역할도 할 수 있다.

학교 운동장을 차별화된 녹색의 놀이 공간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시 전 지역에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는 **안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도시의 회복탄력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요약:

1. **로봇화** → 지식 이외의 스킬이 필요함 → 자유놀이는 그 가치가 저평가 되어 있으나 점차 그 중요성이 증가함;
2. **도시화와 증가하는 불평등** →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아이들 증가 → 놀이를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공용장소에의 접근에 대한 불평등이 증가함
3. **기후변화** → 가장 취약한 도시지역의 경우 지면을 녹색화함으로써 회복탄력성을 강화해야 함

“놀이를 위한 차별화된 녹색공간의 통합설계”기법을 활용하여 3 가지 도전과제 모두에 대응할 수 있다. 놀이를 위한 차별화된 녹색공간의 통합설계 기법을 활용하는 도전과제에의 대응책은 **프로세스**와 잘 설계된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프로세스:** 훌륭한 맞춤형 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아이들과 다양한 커뮤니티 구성원 혹은 이해관계자가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프로세스는 3 단계로 구성된다:
 1. 진정한 대화(True dialogue), 발표 중에 사례 제시
 2. 통합설계(Co-design), 발표 중에 사례 제시

3. 통합건축(Co-construction), 발표 중에 사례 제시

이러한 맞춤형 된 프로세스가 훌륭하게 진행될 경우:

- A. 아이들의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스킬 (협력, 상대 의견의 청취, 창의력, 혁신적 사고, 기업가 정신, 상호 이해)을 키울 수 있음;
- B. 커뮤니티 내 다양한 구성원 간의 교류와 논의를 가능하게 하여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목표를 도출할 수 있음: 포용적인 공간, 다양한 사용자 그룹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음. 그 결과, 진정으로 커뮤니티가 소유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음;
- C. 모든 관계자에게 권한을 부여함; 가능한 모든 스킬을 사용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의 창의성,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아이들과 커뮤니티 구성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D. 놀이의 권리와 공용공간에 대한 권리와 도시의 공용공간의 녹색화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홍보대사/체인지메이커(changemaker) 그룹을 만들어 낼 수 있음.

건축가, 놀이터 기업, 혹은 지역정부가 강력한 커뮤니티 프로세스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2. 결과물, 만남과 놀이를 위한 차별화된 커뮤니티 공간. 궁극적으로는 관계자들의 요구사항과 뛰어난 디자인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설계자들은 전체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숨겨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다음을 달성한다

- a. 위치상 독특한 (물리적) 특징이 활용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보장함
- b. 경로 및 구획결정으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확대하고 부정적인 개입을 방지함
- c. (7가지) 다양한 유형의 놀이의 차별성을 보장함 - 발표 중에 사례 제시. 아이들이 다양한 유형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놀이 영역에서 아이들은 더 긴 시간 - 감독 없이 - 놀이하며, 더 자주 방문하고 싶어하며, 아이들 간의 괴롭힘이 줄어들고, 더 동적인 놀이를 하며 (더 많이 움직임), 성별의 구분이 없는 놀이를 함. 또한, 잘 설계된 차별화된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21세기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더 잘 학습할 수 있음.
- d. 다양한 수준의 난이도를 제시하여 서로 다른 능력(장애)을 가진 아이들, 서로 다른 연령의 아이들이 본인에게 맞는 놀이를 찾을 수 있어야 함.
- e. 모든 다양한 관계자가 본인의 의견이 수용되어 최종 설계에 반영되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함.

발표 시에는 프로세스와 최종 결과를 제시하는 다른 프로젝트를 공유. 아이들이 향후 직면하게 될 모든 도전과제들에 대응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자유놀이를 통한 학습기회를 확대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커뮤니티와 아이들과 함께, **녹색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남과 놀이의 공간으로 통합설계하여 공용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Solutions for 21st Century Children in Co-designing (green) Playspace

Children will live in a century full of challenges

1. One of the most relevant challenges children will face is the robotization. In 30 years machines / robots will be smarter than our children. The future generations will only be able to compete with machines and robots by developing their distinguishing skills: their soft skills ('teamwork', 'care for others', 'value and belief', 'creative thinking') and their 21st century skills (teamwork, creative thinking, independent thinking, innovativeness and entrepreneurship). The focus on knowledge is losing relevance. National curricula are being reformed to teach children 21st century skills. But children develop these specific skills even more through play. Play is one of the most underexposed facets in their lives, with great potential to contribute to the skills they will need so hard in the coming century.

It is a Child's right to play. Children have a biological intrinsic drive to play. But children do need time and a safe SPACE to play.

2. Second challenge of 21st century children: urbanization and raising inequality.

The amount of people living in urban regions will rise from 4.2 to 6.7 billion people in 2050, of which one in eight in the 33 megacities (> 10 million inhabitants).

Off course, urbanization has benefits. But not for all. A significant proportion of urban population growth is occurring mostly in unplanned and deprived areas. Disparities in urban areas are larger than in rural areas.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among the most vulnerable members of any community and will disproportionately suffer the negative effects of poverty and inequality. The rising inequality in access to safe public

spaces to meet, move and play is increasing. Safe public spaces can be found in well to do neighborhoods, in parks with entrance fees, in shopping malls, or combined with a cafe. Children have to pay to play. The rising inequality between people in urban areas is being addressed in several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particular SDG 11 targets (by 2030) to provide access to (...) safe, inclusive and accessible, green and public spaces, in particular for women and children,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re is a growing need for **safe spaces** to play, free of charge, equally divided amongst the growing urban population.

3. Thirdly, 21st century children will face the challenges of the climate change.

The 6.7 billion urban inhabitants will have to deal with increasing extreme weather circumstances. Cities, especially the unplanned urban sprawl areas, are most vulnerable to disasters like storms, heavy rains and extreme heat periods. The call for **more resilient cities** is larger than ever. There lays great potential in greening the city's so-called grey (paved) areas, e.g. parking lots or schoolyards. The total surface of a city's schoolyards makes up the equivalent of a major city park. The schools by their nature engage a significant and diverse proportion of the city's population. As such greening schoolyards is an urban intervention that is both highly distributed, and with the potential to influence the city as a whole: increasing the city's capacity to temporarily store and slowly drain heavy (storm)water, and creating urban oases combatting the urban heat islands during extreme heat periods.

Improving schoolyards into differentiated green play areas provide **safe spaces** to play, divided equally amongst the city, contributing to the resilience of a city.

Summarizing:

1. **Robotization** → need for other skills than knowledge → underestimated value but growing importance of free play;
2. **Urbanization and rising inequality** → more children deprived from basic services. → the rising inequality of access to safe, inclusive public spaces to play;
3. **Climate change** → most vulnerable urban areas need to become more resilient by greening their surfaces.

The method “Co-designing differentiated & green spaces to play” responds to all 3 challenges. In the method co-designing differentiated & green spaces to play, the responds to the challenges can be found in both the **process** and in a well-designed **result**

1. **the process:** A good tailor-made process truly involves children and different community members or stakeholders. The process consists of 3 steps:

1. True dialogue, to be illustrated during the presentation
2. Co-design, to be illustrated during the presentation
3. Co-construction, to be illustrated during the presentation

Such a tailor made, well lead process:

- A. increases children's 21st century skills (cooperation, listening, creativity, innovative thinking, entrepreneurship, mutual understanding) ;
- B. ensures interaction, and discussions between different community members, resulting in more mutual understanding and a shared goal: a co-created inclusive space, answering the needs of diverse user groups. Therefore truly community owned;
- C. empowers all participants ; makes use of the available skills, taps into community's creativity and resources, listens to all different children and community members
- D. creates a group of ambassadors/ changemakers, advocating for their right to play, to public space or the need for greening city's public space.

These opportunities are not seized, if architects, playground companies, or local governments are implementing playgrounds without a strong community process.

2. The result, a differentiated community area to play and meet. It may seem difficult to embed participants' needs and at the same time ensure a strong design at the end. Therefore a (hidden) checklist guides designers throughout all stages of process to

- a. ensure the unique (physical) features of the location are being used and improved.
- b. ensure routing and zoning increase natural movement, avoid negative interaction.
- c. ensure a differentiation in the (seven) types of play - to be illustrated during the presentation. On a play area which invites children to play different types of play, children play for a longer time –without supervision–, children want to come back more often, less bullying occurs, children play more actively (move more), children play more gender-mixed. Additionally, children learn more of the needed 21st century skills and the soft-skills on a well designed differentiated playground.
- d. ensure a differentiation in levels of difficulties enabling different children with different (dis)abilities and of different ages can find their own play
- e. ensure that all different stakeholders feel that their opinion has been heard and can find their voices reflected in the final design.

In the presentation different projects will be showed, illustrating the processes and the final results. If we want the children to be able to respond to all challenges facing them, we can start by increasing their opportunities to learn through free play. Together with communities and children we can **reclaim public space by co-designing green community spaces to play & meet.**

아이들이 주인이다! 모험 놀이터 40년의 운영 노하우와 지역의 자산

Children is the Lead! Operation Know-how in an Adventure
Playground for 40 years and Assets in a Obtained Area



나카니시 가즈미

일본 (Japan)

세타가야 플레이파크 플레이워커

Playworker of play park Setagaya

Kazumi NAKANISHI

아이들이 주인이다!

모험 놀이터

40년의 운영 노하우와

지역의 자산

1)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 활동에 대한 생각

‘어린이가 자유롭게 활기차게 뛰놀 수 있는 놀이터를!’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어린이놀이터 환경을 탐탁지 않게 여긴 한 부부의 노력이 지역 주민들의 공감을 불러모으면서 “그거 한 번 해 보고 싶다!”라는 어린이들의 생각을 중시한 모험놀이터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979년 ‘국제 아동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하네기(羽根木)공원에 일본 최초의 상설 모험놀이터 '플레이파크'가 탄생했습니다. 개장 당시부터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활동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플레이파크는 어린이들의 주체성을 존중하여 어린이들 스스로 하고 싶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한 놀이터입니다. 어린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손으로 만든 놀이기구, 모닥불을 둘러싸고 앉은 어린이들의 모습, 한 손에 톱을 들고 공작에 열중하는 어린이들…… 언뜻 보기에 일반적 공원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쿄 도내에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려 흙, 물, 불, 나무 등을 접하면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플레이파크라는 어린이들의 놀이터 환경 조성을 통해 어린이들을 사이에 두고 지역 주민들이 서로 알게 되고, 교류하고, 서로 돕는 육아 환경을 만들어 왔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놀이 속에서 어린이는 자란다', '지역 안에서 어린이는 자란다'라는 점, 둘째로 지역 커뮤니티의 구축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놀이' 자체의 매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폐쇄적이고 고독해지기 쉬운 육아 환경을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인 야외 '공원'으로 바꿈으로써 영유아에서 고령자에 이르는 폭 넓은 연령대의 연결을 가능하게 만들고, 지역 안에서 서로의 얼굴이 보이는 가시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

“이런 놀이터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다!”

자신들이 머무를 곳을 스스로 만드는 활동, 관계 형성을 통해 자신들의 공간으로 만드는 즐거움을 실감한 지역 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의 작은 외침을 행동으로 바꾸어 온 활동이 모험놀이터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남에게 맡겨 버리는 세태가 강해 육아조차 전문가에게 기대기 쉬운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이어온 활동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놀이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서로 알고, 교류하고, 서로 돕는’ 장으로서 모험놀이터 활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2) ‘NPO법인 플레이파크 세타가야’의 개요

2-1) 설립 목적

세타가야(世田谷)구에 위치한 4 곳의 플레이파크에 대한 확충·발전을 중심으로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유롭게 놀기’라는 활동 이념을 사회에 한층 널리 알리는 동시에 어린이들이 활기찬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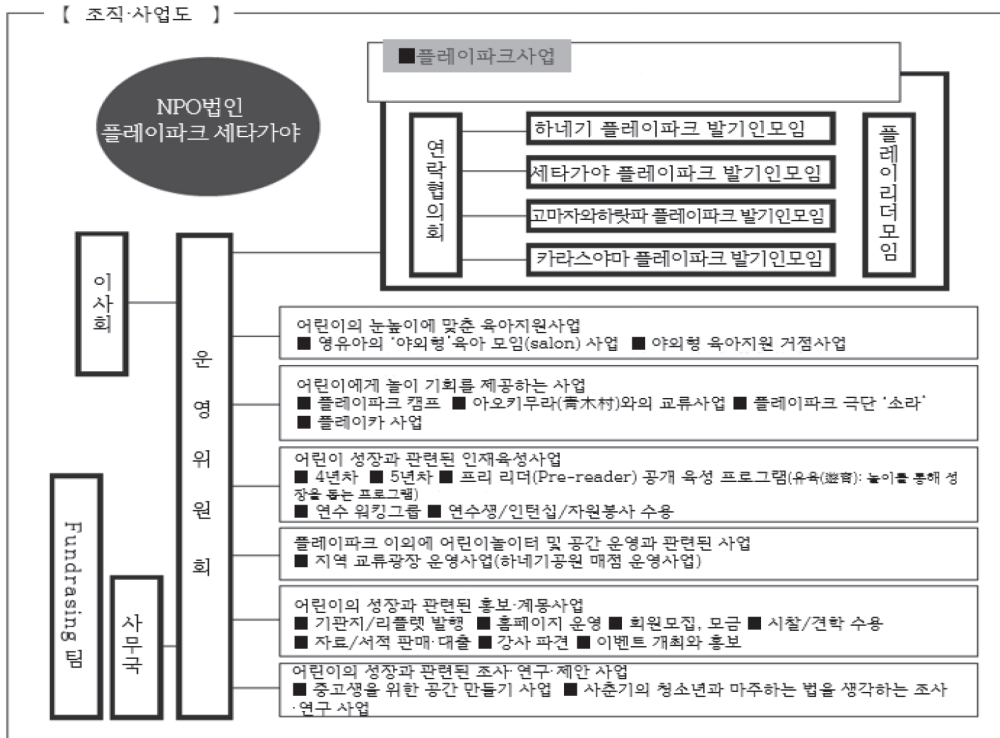
2-2) 활동 방침

우리는 아래의 사항을 중시하면서 하루하루 활동하고 있다.

- ① 항상 어린이에게 다가가려는 시선을 가질 것.
- ② 인생에서 최선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 활동을 중점화할 것.
- ③ 학대 등에 대해서는 대중요법이 아닌 가정에서 학대 받는 어린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지역에서 창출할 것.
- ④ 어린이에게 다가섬으로써 때로는 ‘위험하고, 더럽고, 시끄러운’ 존재로 비치기 쉬운 어린이의 욕구를 이해하고,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플레이 리더의 존재를 중시할 것.

2-3) 현재의 주요 활동(조직체제 / 사업전개도)

세타가야구에 위치한 4곳의 플레이파크 운영 외에 사회와 지역의 요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외침에 대해 문제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이를 형태화해 나가는 것을 중시하고 있어 현재 법인 설립 당시에 비해 사업이 확대되었다.



3) 놀이터의 디자인(180929(토) 작성)

3-1) 어린이가 자라는 환경의 문제

IT, SNS, IOT를 비롯한 기술 혁신으로 '쉽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생활 환경이 되어 가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직접 손발을 사용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실제 경험이 부족해지고 있다. 또 어린이가 체험을 통해 '위험 감지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기 쉬운 환경이 되고 있다.

육아의 '외주화', 즉 영유아 교육 및 학원 등 다방면에 걸쳐 서비스의 지원을 받기 쉬워지면서 어린이들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하는 사례도 많다. '지연(地緣), 혈연'에 의존하지 않고도 어린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어린이의 '3間(時間(시간), 仲間(동무간/또래), 空間(공간)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따라 학습 내용이 고도화되고, '어린이가 어린이답게 보낼 수 있는 방과후 시간의 감소'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놀이터 환경의 변화의 경우 '규제대국 일본?!'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원 내에서도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 민원이나 사고로 인해 공원 관리자가 정신적으로 위축되기 쉽고, 문제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상황에서 '놀이기구 철거'가 이루어지면서 '텅 빈 공원'이 생기는 사례도 있다.

1. 위 3요소는 일본어로 모두 '間'이라는 한자가 들어가는데, 'MA', 'KAN' 등 독음(讀音)은 다르지만, 한 단어로 정리하기 위해 3을 붙여 '3MA'라고 명명한 것으로 보임(역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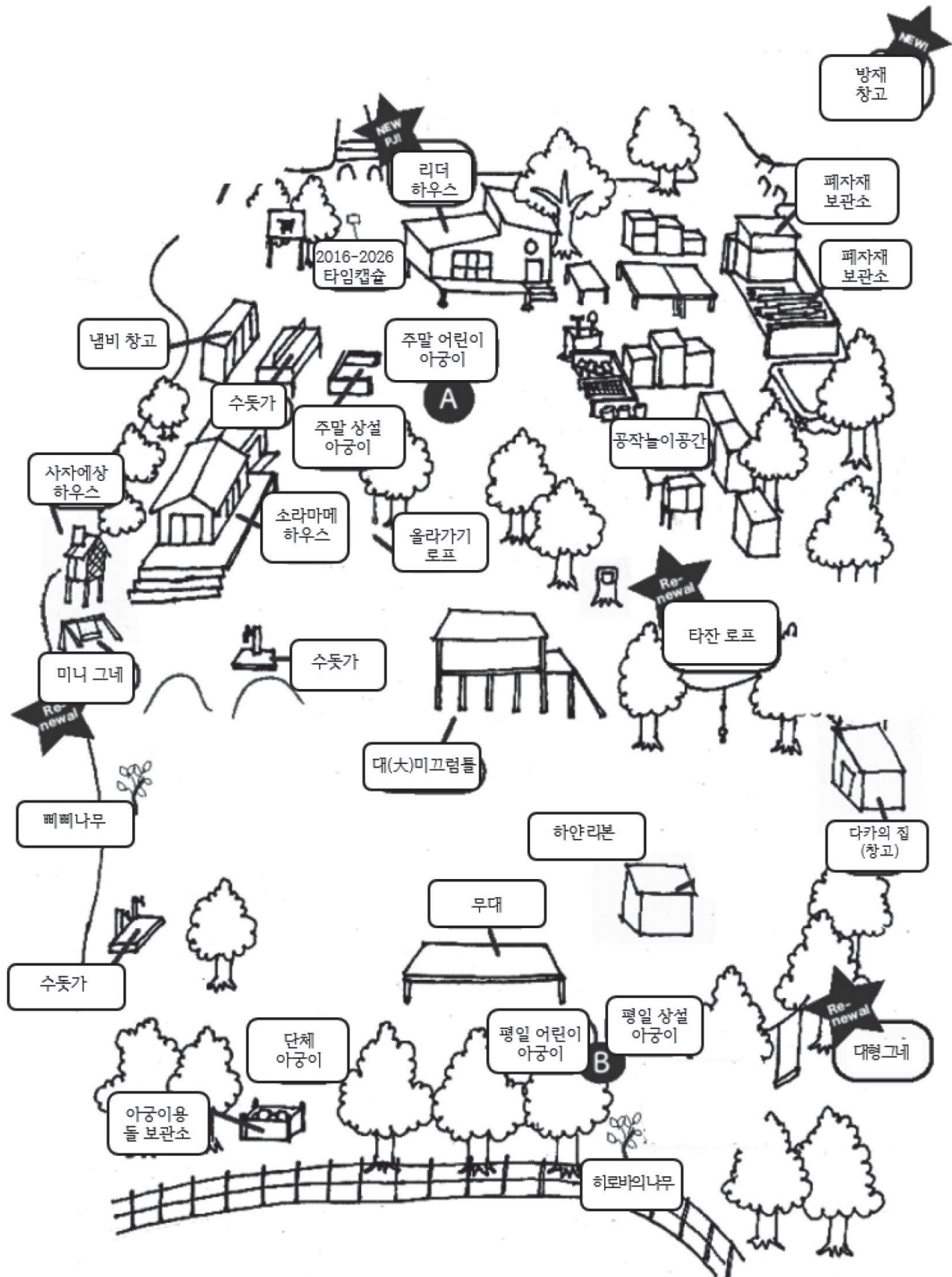
과거에는 어린이 스스로가 생활 속에서 터득해 온 신체적 동작도 익히기 어려워 '걸레질을 못하거나 수도꼭지도 틀지 못 하는' 외에도 뼈가 부러지기 쉽다는 등의 연구 결과도 있다. 또 '높은 곳에 대한 공포심이 없거나 힘 조절을 못 하는' 등 감각 변화도 놀이 환경,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3-2) 달라지는 놀이터 디자인

놀이를 즐기려는 마음을 이끌어내는 공간의 형태를 생각할 경우 중시하고자 하는 관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어린이 자신이 "그거 한 번 해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열중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들의 주체성을 이끌어내는 환경은 어떠했는지…….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는 일은 필수불가결하다. 또한 매일 현장에서 만나는 어린이들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자식이 무심코 중얼거린 말에도 힌트가 있다. '이런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외에도 '어린이, 어른, 지역'의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디자인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공간의 관찰'이란 '매력을 살려서 부족함을 채우는' 행위이다. 셋째, 주변 정보, 부지 정보를 정리한다. 이해 관계가 엇갈리기 쉬운 이웃의 상황을 파악하고, 놀이터의 사람과 사물의 동선을 적절히 설계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피할 수 있다. 유사시에 '사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목록화하고 지도를 작성해 두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모험놀이터 고유의 특징은 '만들었다가 부수는' 변화하는 디자인이다. 기성의 놀이기구와는 달리 '손으로 만든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그 때마다 필요한 형태로 수정 가능하다. 어린이의 역량을 이끌어내는 놀이기구의 구조에는 일부러 넘어야 할 '벽'이 설정되어 있다. 어린이의 나이에 따른 제한이 아니라 어린이 자신이 그 놀이기구를 다룰 수 있는 체력, 지력(知力), 도전정신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높이가 높은 놀이기구의 경우에는 그것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를 위해 일부러 첫 번째 계단을 치워 버려 힘이 있는 어린이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 이러한 사소한 아이디어가 어린이의 도전정신에 불을 붙이고 있다.

【 2017년도 ★ 하네기 플레이파크 맵 】



Children is the Lead! Operation Know-how in an Adventure Playground for 40 years and Assets in a Obtained Area

1) The Adventure Playground "Play Park" Beginnings and Thoughts on Activities 'A place where children can play freely!'

Around 40 years ago, an effort of a couple who had felt something wrong with the environment in which children grow up, stroke a chord with the people living in the area, and started the activity to create an adventure playground where adults respect children's ideas for activities, "I want to do it!" In 1979, as part of the commemoration project for the international childhood year, an adventure playground "Play Park" was born at Hanegi Park. It was a permanent adventure ground for the first time in Japan. Since its start, local residents and the administration have been working together on this activity.

Play Park is a playground aiming to respect the independence of children, and where children can play making their original ideas come true. Handmade equipment by which the interests and curiosity of children are stimulated, children surrounding bonfires, children who are fascinated with wood working using a saw ..., at first glance Play Park is totally different from ordinary parks. While utilizing the blessed nature in the city, this park is a place where children can play as much as they want while touching the soil, water, fire, wood, etc.

Through making a child playground environment such as Play Park, we realized that we have also made an environment where the residents of the area can become acquainted, interact with, and support each other while putting children at the center.

Specifically, we have felt two things. First, "A child grows up in the play." "A child

grows up in the area." And second, Play Park have played a part of building a local community. Play Park play attracts and connects quite many people by its uniqueness. Placed in a park, an outdoor area, Play Park makes possible for the local residents to build mutual relationships that can see each other's faces, among different ages, from the babies to the senior citizens. Parents nowadays often tend to raise their children in a closed environment feeling loneliness though.

"I'd like to raise my children at such place!"

"I'd like to create such a playground with the person who lives in this town!"

Keeping involved in Play Park, local residents have changed their little voices into action, and realized the pleasure of creating their whereabouts by themselves. This has been the driving force by which adventure playgrounds have been run.

Although there is a strong trend that people leaves everything to others, where even parenting is often entrusted to the specialist, we'd like to keep working in adventure playground, a place where people meet, interact with and support each other. We value we have done for these about 40 years, and are going to blow the wind of play from now on.

2) "NPO corporation Playpark SETAGAYA " the group outline

2-1) the establishment purpose

It aims to tell about our activity philosophy "You play freely by your responsibility" to the society as well as sustain and develop 4 playparks in Setagaya-ku, and realize a society in which children can be full of life.

2-2) activity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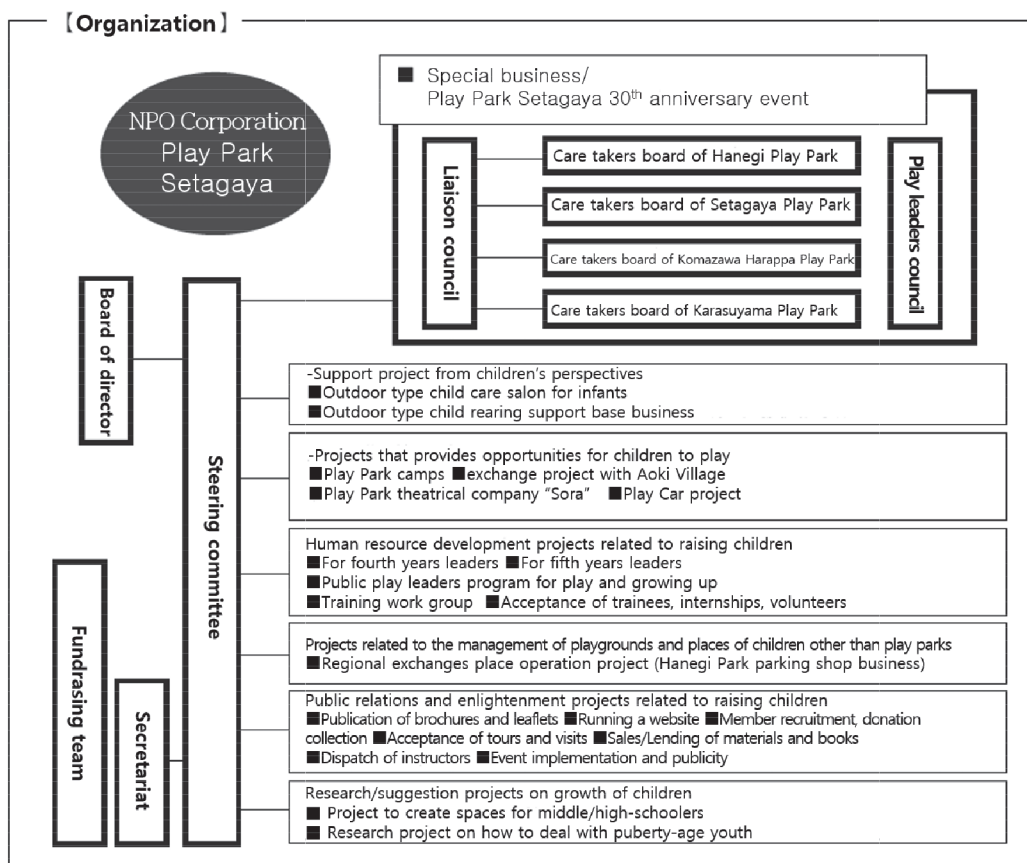
We're doing daily activity while emphasizing the following things.

- ① Looking always at things from a child's perspective
- ② Prioritize activity concerning infants to ensure the best start of life.
- ③ Regarding child abuse, without relying on superficial solution,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the number of children who are abused at home doesn't increase in the area,
- ④ Respect play leaders who are always with children and expand their play by understanding their wants and needs which adults often regard as "dangerous, dirty, and noisy"

2-3)The main current activity(organizational structure/business development)

In addition to the operation of 4 playparks which are in Setagaya-ku, we expand different business for children and parents of all ages, depending on social or local

needs. Since its beginning, we have taken someone's little voice as our own problem and expanded our activities.



3) Playground Design (Written on Sep. 29 (Sat.))

3-1) Problems of living environment of children

"Easy, convenient, efficient" living environment enabled by such technological innovations as IT, SNS, and IOT is depriving children of hands-on experiences to create something with their own bare hand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Such an environment is also taking away opportunities for children to learn through experience an "ability to sense danger."

"Outsourcing" of child upbringing, i.e., a variety of services provided for children's education and private academies, is making many children as busy as adults. The new environment makes it possible to raise a child without the help of communities and families.

Against this backdrop, concerns have long been raised about the deprivation of three "間s," or time (時間), peer (仲間), and space (空間). The update on "Education Instruction Guideline" for elementary school has complicated learning content, and "the shrinking after-school time for children to enjoy themselves as children" is deepening the concerns.

In terms of change in playground environment, regulatory restrictions are on the increase even in parks, a symptom of “regulatory kingdom Japan?!” Civil complaints and accidents are psychologically discouraging park administrators, and “removal of play structures for children” without proper analysis of problems is resulting in “empty parks” on many occa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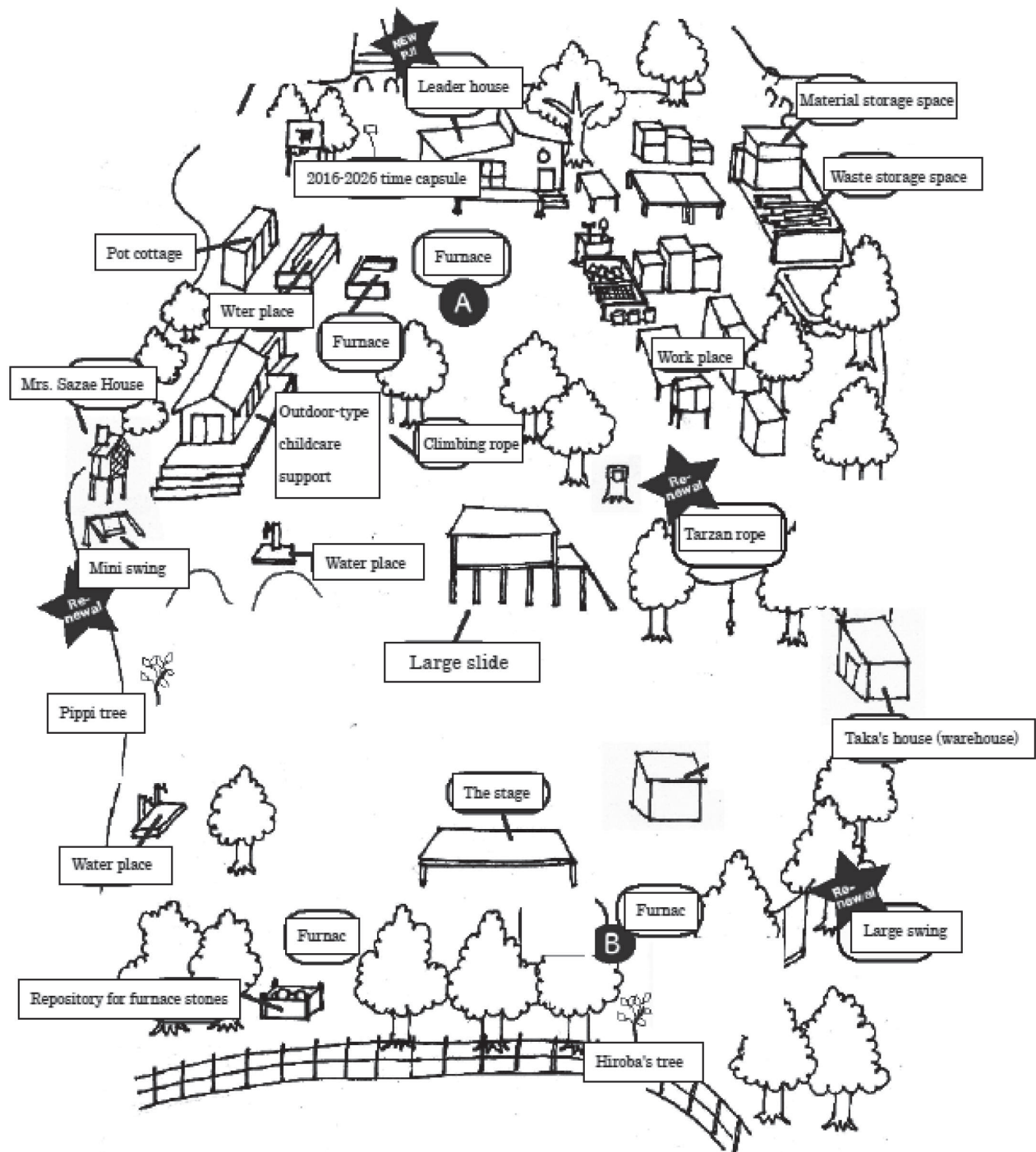
Studies find that children increasingly find it difficult to learn physical movements that they had learned in the past on their own in their daily activities, leaving some children “unable to wipe floors or turn on a tap for water” and others vulnerable to bone fractures. Other changes in senses such as losing fear of height or ability to control power are thought to have resulted from changes in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3-2) Adventurous playground design

There are three key points we value when we create a space that attracts attention of children for play. First, children themselves must stay focused with an intention that “I really want to try that!” Children should be empowered in their play environment, and we should keep track of their day-to-day adventures to create such an environment. We should also take note of what is inadvertently said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s well as such a comment as “I wish we had this kind of playground,” a challenge must be address in designing a playground to meet the needs of “children, adults, and the community.” Second, we should leverage the appeal to “observation of space” to compensate for shortcomings. Third, information on surroundings and sites must be collected. We should take stock of neighbors who may have a conflict of interest and design in a wa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movement routes of people and objects on playgrounds to preclude “unnecessary civil complaints.” Emergency “accident response” checklist and map pre-prepared will enable a quick contingency responses.

The unique features of Adventure Playground is an adventurous design to “build and destroy.” Unlike conventional play structures, it is comprised of “play structures made with hands.” Therefore the structure may be modified in the manner that is desired whenever necessary. A “barrier” is set for a structure that requires the use of children’s potential. The structure sets restrictions not on age but on physical power, brain power and spirit of challenge. For example, a child cannot play with a structure that has a height out of reach unless the child successfully strives to climb up. For this purpose, the first step of stairway is removed so that only a child with physical power can use it. This simple, small idea has fueled and rekindled the children’s spirit of challenge.

2017 ★ Hanegi Play Park Map



Yoko Takashima, a local resident working together in an adventure playground, volunteered to translate this time.

→ If you can, I'd be happy if you can leave the name of "Takashima Yoko" as translator name.

아동의 목소리에 근거한 어린이공원 개선 경험

Making Playgrounds Based on the Children's Voice



김은정

한국 (KOREA)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Advocacy Director of Save the Children Korea

Eunjoeng KIM

아동의 목소리에 근거한 어린이공원 개선 경험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아동은 놀이·오락시설의 접근성 및 적절성과 관련하여 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공식적인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아주 어린 아동과 일부 장애아동은 자신의 소망을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12. 아동의 피청취권 115항. 놀이, 오락, 스포츠, 문화활동)

세이브더칠드런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놀이터 공간개선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놀이터에 대한 아이들의 의견을 수집했다.¹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내 나이에 맞는) 시시하지 않고 스릴 있는 놀이터’, ‘크고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곳’, ‘술병이나 담배꽂초, 고양이 배설물이 없는 깨끗한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놀이터를 만드는 거니까 어른들이 그냥 알아서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우리와 생각을 한 번 같이 해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라는 의견은, 대표적인 아동 공간인 놀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조차 아이들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떠올리게 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놀이시설 자체를 우선시하기보다는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아이들이 개선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놀이터 공간개선을 진행하게 된 이유이다.

1. 세이브더칠드런은 2015년부터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캠페인 “놀이터를 지켜라”를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아동의 놀 권리’를 사회적인 의제로 설정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와 학교, 부모 등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실천하는 활동이다. 크게 ▢한국사회 내 아이들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법령 개정을 비롯한 정책적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학교에서 놀이가 활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바꾸는 활동,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놀 권리에 대해 말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아동참여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놀이터를 지켜라’에서 놀이터는 물리적인 공간과 장소만이 아니라 아동의 놀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 놀이시간의 확보 등 아동이 놀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만드는 것을 포괄한다.

1. 2015년 중랑구 세화놀이터: 아동의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다

2015년 당시, 중랑구 세화놀이터는 이미 몇 년 전에 안전 검사에 불합격해서 놀이기구가 다 철거되고 낡은 정자만 남아 있던 곳이었다. 동네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빈 놀이터 주변에서는 아이들을 만나기 어려웠다. 인근에서 어렵사리 만난 여자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처럼 동네에서 놀긴 하는데, 주차된 차에 부딪히기도 하고 골목길에서 시끄럽게 논다고 자주 혼나요. 그래서 거의 집에서 동생이랑 놀아요. 빨리 놀이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² 밖에 나와 놀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세화놀이터 개선사업을 함께 진행한 서울시 중랑구(공공), 세이브더칠드런(시민사회) 그리고 벤처기부펀드 C Program(기업)은 아동과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우리는 워크숍을 열어 놀이터 근처의 어린이집과 놀이터 주변 거주 아이들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고, 아이들의 의견을 성인 주민과 중랑구 공무원들이 듣도록 하였다. 당시 세이브더칠드런은 중랑구에서 놀이터 두 곳의 개선사업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약 4개월 간 어린이디자인워크숍 7회, 주민디자인워크숍 2회, 놀이워크숍 4회, 어린이디자인위원단 3회, 주민설명회 6회, 중랑구청 디자인협의 2회, 놀이터 활동가 간담회 1회 등, 총 25회에 걸쳐 아동 및 주민의 참여활동을 이끌어냈다.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과정을 거쳐 놀이터가 완공된 후에는 주민들 스스로가 주도한 축하 행사가 개최되었다. 현재 세화놀이터는 지역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됐고, 무엇보다도 세화놀이터 개선 사업 이후 서울시는 새로운 놀이공간 조성 사업에 아동의 참여활동을 비중 있게 포함시키고 있다.

2. 2018년 노원구 마들체육공원 초록숲놀이터: 약자를 ‘고려한’ 놀이공간을 만들다

이 놀이터는 마들체육공원 내 이름도 없이 영역으로만 존재하던 공간을 바꿔서 만든 통합놀이터다. 그런데 노원구(공공), 세이브더칠드런(시민사회), 코오롱(기업)이 처음부터 통합놀이터를 만들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다. 놀이터가 위치한 공간은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 다양한 장애인지원시설이 밀집한 곳이었고, 이에 따라 아동참여활동과 지역주민참여활동에 장애아동, 장애아동의 형제자매와 가족, 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 등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다. 놀이터를 만드는 사람들과 공무원들은 이 참여과정을 통해, 다수의 장애아동이 놀이터 주변에서 생활해왔음에도, 장애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가 놀이공간 개선활동을 하면서 장애아동을 만나지 못했고 그 결과 장애아동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형제자매,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을 고려하면서 워크숍을 열고 놀이 관찰을 하게 되었다. 놀이터가 문을 열었지만 과연 이 지역 아이들이 이 놀이터에서 실제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될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2. 제충만(2016), 놀이터를 지켜라: NGO, 지자체, 건축가, 기업, 마을 공동체가 경험한 놀이터 개선 프로젝트 586일의 기록. 푸른숲.

그동안 아이들이 교사를 인솔하에 차를 빌려서 통합놀이터가 있는 어린이대공원까지 가야 겨우 놀이기구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일상적으로 놀이터에 갈 수 있게 된 지금은 아이들의 삶에 보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3. 놀이터는 단지 놀이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갈 곳이 없고, 맘 놓고 뛰어 놀 공간이 없는 동네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그 지역사회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질까?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은 놀이터를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중요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고, 지역에서 맘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³ 아이들에게 놀이터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의 질을 느끼게 하는 곳으로서, 단순한 놀이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아이들은 어디서든 논다. 어린이공원이 아이들의 놀 공간은 아니다. 그러나 공공 놀이터는 아이들의 바깥 놀이를 위해 특화된 전용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위해 자원을 분배하는 대표적인 기반시설이다. 만약 어떤 지역이 아동을 위한 놀이터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놀이터가 관리되지 않아 아이들이 놀 수 없다면, 그 지역에서 아동을 위한 다른 어떤 제도도 제대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놀이터는 그 사회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 놀이터 만들기 사업에서 아이들은 대개 약자로 취급되거나 소외되는데, 놀이터는 어른이 짓고 아이는 그 안에서 놀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놀이터를 만드는 과정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아이들은 지역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소위 약자들, 지역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지역의 공간 배분에서 소외된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고려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공간이 없으면 이들은 더욱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세화어린이공원 주변에 사는 아이들이 그랬고, 마들체육공원 부근에 사는 장애를 지닌 아이들이 그랬다. 돌이켜보면 세이브더칠드런의 놀이터 공간개선 활동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으나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을 지역사회에 드러나도록 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보이지 않던 사람들을 보이게 만들고,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은 아동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3.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유조안, 유민상(2015). 2015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세이브더칠드런&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Making Playgrounds Based on the Children's Voice

“...Children who are able to express their views should be consulted regarding the accessibility and appropriateness of play and recreation facilities. Very young children and some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are unable to participate in formal consultative processes, should be provided with particular opportunities to express their wishes.” (Paragraph 115, In Play, recreation, sports and cultural activities; General Comments about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No. 12;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

Save the Children Korea had listened to children's opinions about playgrounds at various regions before launching a new project 'to rebuild playgrounds in urban areas' in 2015 with local governments.¹ Regardless the regions, children commonly wanted “playgrounds thrilling enough for my age,” “large and spacious playgrounds to play,” and “clean playgrounds without liquor bottles, cigarette butts and cat poop.”

1. Save the Children Korea has operated the campaign “Save the Playgrounds” to promote the right to play since 2015. This campaign has set “children's right to play” which has been neglected in the society, as a social agenda; and aimed to discuss and promote what members of the society (the government, schools and parents) need to do to promote children's right to play. The campaign is broadly divided into the activity to urge policy improvements including revision of acts to promote Korean children's right to play, the activity to change spaces for play of children in the community and schools, and the activity to allow children to speak about their right to play and make policy proposals. Meanwhile, “Playgrounds” in the campaign refers to building the environment where children can play (social recognition on children's play and securing of time to play) as well as places to play.

More notably, the opinion “It would be better to listen to us children than just making playgrounds based on grown-ups’ ideas because it is the places for us to play.” reminded me of the reality where children are being neglected even during the process of making playgrounds, which are symbolic spaces for children. This is why Save the Children Korea started the project by focusing on active engagement of children.

1. We learned why we should focus on children’s engagement at Sehwa Playground in Jungrang-gu in 2015

Sehwa Playground in Jungrang-gu was an abandoned place where play equipment was all removed and only a gazebo remained in 2015, as it failed to pass a safety inspection a few years ago. It was difficult to see children near the empty playground and we even doubted whether the village has any child. One day we finally met a girl near the playground and she said, “We play in the village as you can see now, but we are often bumped into parked cars and often told to keep quiet at narrow path. So I play with my sister at home almost all the time. I wish a playground.”² Children were not able to play outside.

Jungrang-gu (a public actor), Save the Children Korea (an NGO) and C Program, a venture charity fund (a business) reached a consensus that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residents of the community mattered and we jointly rebuilt Sehwa Playground. We hosted workshops to allow children attending daycare centers and living near the playground to speak out, and adult residents and public officials of Jungrang-gu Office were invited to listen to children. Save the Children Korea was rebuilding two playgrounds in Jungrang-gu simultaneously, and hosted a total of 25 sessions of workshops and meetings to facilitate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residents for about four months, including seven children’s design workshops, two residents’ design workshops, four play workshops, three meetings with members of the children’s design committee, six presentations for residents, two design meetings with Jungrang-gu Office and one meeting with a playground activist. Residents voluntarily celebrated opening of the playground when it was completed by overcoming many hardships. Sehwa Playground is currently loved by residents, and more notabl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valued children’s engagement in building new playgrounds since Sehwa Playground was improved.

2. The vulnerable groups were considered when building Choroksup Playground at Madeul Sports Park, Nowon-gu in 2018

2. Chung-Man Je (2016), Save the Playgrounds: The record of 586-day project to improve a playground by an NGO, a local government, architects, enterprises and a community, Prunsoop.

This playground was completed as a universal playground by creating a nameless space in Madeul Sports Park. Nowon-gu Office (a public actor), Save the Children Korea (an NGO) and Kolon (a business) did not plan to build a universal playground at first. It was located at the spot where various facilities supporting the disabled including a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were densely located, so the disabled children, their families and social workers naturally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building the playground. Those who were building the playground and public officials in charge recognized that there had been no space for a large number of disabled children who have lived near the playground to play.

Save the Children had not met any disabled child and failed to consider them while rebuilding playgrounds until then. We began considering how to build a playground where disabled children can play with their family members and peers. We hosted workshops and observed how they played. The playground is now open, so the result is yet to be seen. However, we can expect this playground will positively change children's life, as they had to rent a bus and go to Children's Grand Park with their teachers to use a universal playground before this playground was built.

3. A playground does not just mean a space to play

What do children feel about their community if they do not have a place to go and play? According to the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of Korean Children, children recognize a playground as an important space in their life, an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community is determined by a playground available for them.³ A playground does not just mean a space to play but a place to hang out with peers and evaluate the quality of safety and welfare service of the community.

Children play at any place, and playgrounds are not only places for them to play. However, public playgrounds are spaces dedicated to outdoor activities of children and symbolic infrastructure built by a community by allocating resources for children. If a community does not have a child-centered public playgrounds or has failed to manage playgrounds, we hardly expect any other systems for children from the community to be functioned properly.

Playgrounds also most clearly show how adults of a community treat children. Children are treated as vulnerable groups or are neglected during the process of building a playground. Playgrounds are built by adults, and children have to play in places made by adults. Accordingly, it is important to allow children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3. Bong Joo Lee, Seon Suk Kim, Jae Jin Ahn, Joan Yoo and Min Sang Yoo (2015). A Report on Korean Children's Quality of Life. Save the Children Korea & the Institute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ilding a playground. Children can engage in the process of allocating local resources in this way, and they can also be respected as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learn how to speak.

The so-called vulnerable groups, which refer to those in invisible places in the community, are easily neglected when spaces of the community are allocated. It is not easy to make spaces for them as they are not visible. Meanwhile, they become more and more invisible when there is no space for them. This is the story of children living near Sehwa playground and disabled children living near Madeul Sports Park. Looking back, the project to rebuild playgrounds of Save the Children Korea was a process to make the children who were living in the area but not in sight exposed to the community. All these activities to reveal those who are invisible and create spaces for them began from listening to children.

memo

놀고 싶은 서울, 놀이터의 미래를 말하다

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발 행 처 서울특별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감 수 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 조직위원회

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

김명순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대표

유영봉 서울시청 공원녹지정책과장

김용배 서울시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협력팀장

조윤주 서울시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문화팀장

연 락 처 서울시청 공원녹지정책과 윤석환, Tel 02-2133-2037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채희옥, Tel 02-775-9122(내선331)



